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October 2022
Vol.370
10

COVER STORY
창단 60주년·50주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COLUMN
희미하게 잔존하는 반딧불이를 위하여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서동예술창작공간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가 함께 합니다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2022 프리콘서트

BICmf 2022 Pre-Concert

– 대전환 그리고 포용 –

예술감독 오충근
수석예술부감독 한수진
예술부감독 김재원 김규현 백동훈

2022. 11.16 WED ____ 11.25 FRI

주최 |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조직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특별후원 | SHINSEGAE
Friendship Supporters | 송월타올 · 송월우산 대선주조 hyungji 패션그룹형지 동성모터스 BNK 부산은행 Dongsung Finetec
예매 | 인터파크 YES24.COM 공연문의 | 080.600.2030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Busan International Classic Music Festival

BICmf 2022 Pre-Concert

하이엔드 클래스, '예술도시 부산'의 미래

2022.11

예술감독 오충근

수석예술부감독 한수진

예술부감독 김재원 김규현 백동훈

부산문화회관

11.16 Wed | PM 7:30
중극장

BICmf 챔버오케스트라 : 리더 이경선
백재진 이경선(Vn.) 김상진(Va.) 이명진(Vc.) 황세희(Hp.)

11.17 Thu | PM 7:30
챔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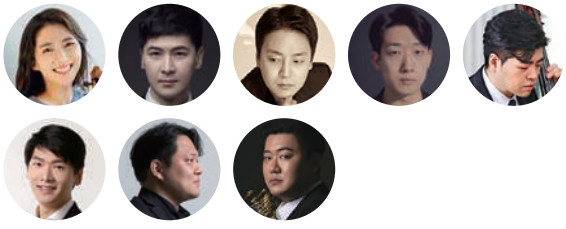
BICmf 손민수 독주회 : 임윤찬 스승의 초절기교 연습곡
손민수(Pf.)

11.19 Sat | PM 5:00
챔버홀

BICmf 실내악 :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시그니처 콘서트
손정범(Pf.) 송지원(Vn.) 신경식(Va.) 이정현(Vc.)

11.22 Tue | PM 7:30
챔버홀

BICmf 솔로이스츠 : BICmf솔로이스츠가 펼치는 슈베르트
한수진 이우일(Vn.) 김규현(Va.) 이원해(Vc.) 조용우(DB.)
백동훈(Cl.) 장현성(Bn.) 김형주(Hn.)



누리마루 APEC 하우스

11.25 Fri | PM 5:00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초청자에 한해 관람 가능

BICmf 스페셜콘서트 : 4첼로 · 송영훈과 친구들
송영훈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Vc.)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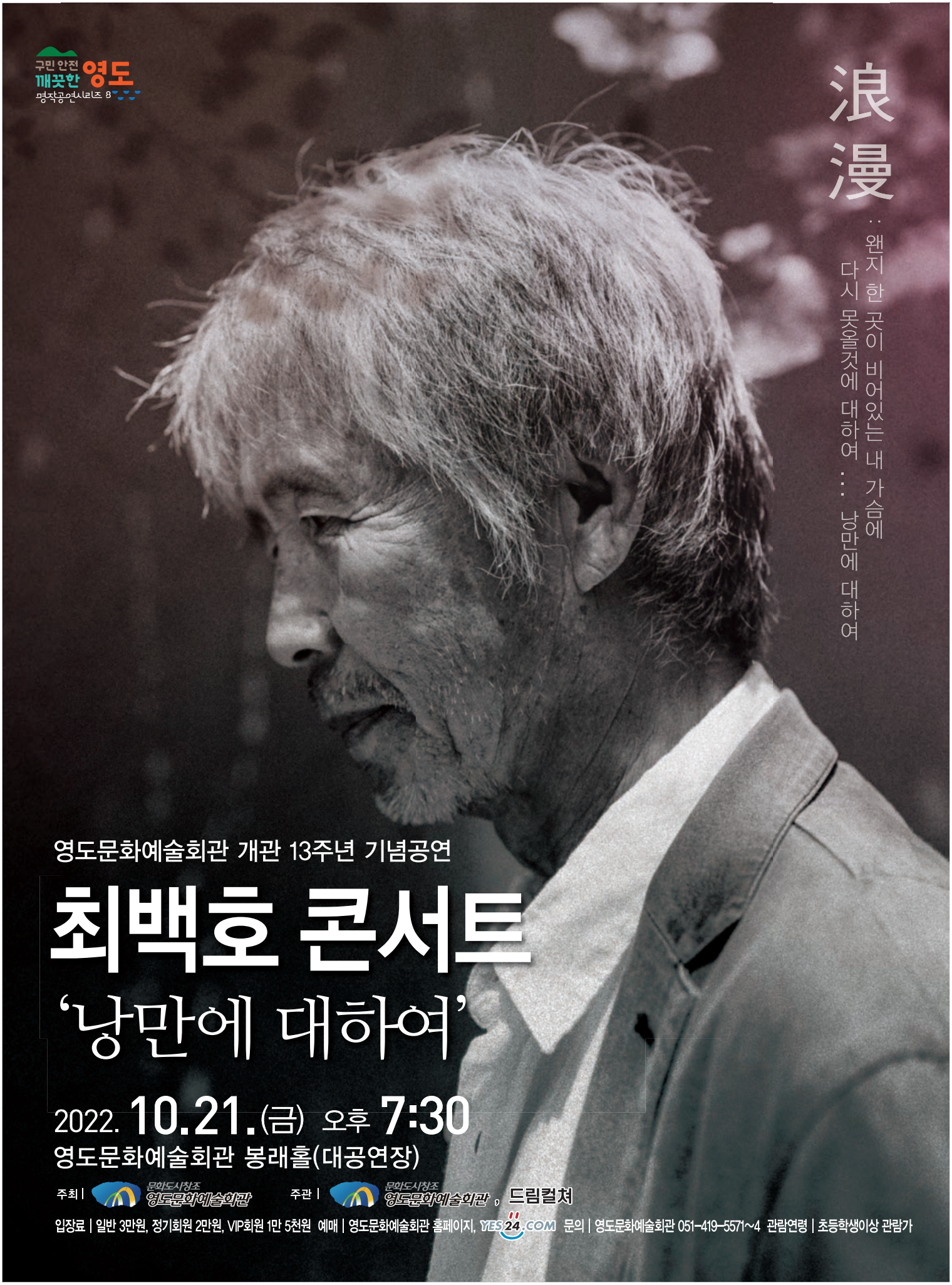
PIAZZOLLA Meets LOUIS ARMSTRONG

반도네온 고상지 피아노 최문석 바이올린 윤종수 더블베이스 김유성 트럼펫 박준규 해설 정환호

2022.10.26. wed,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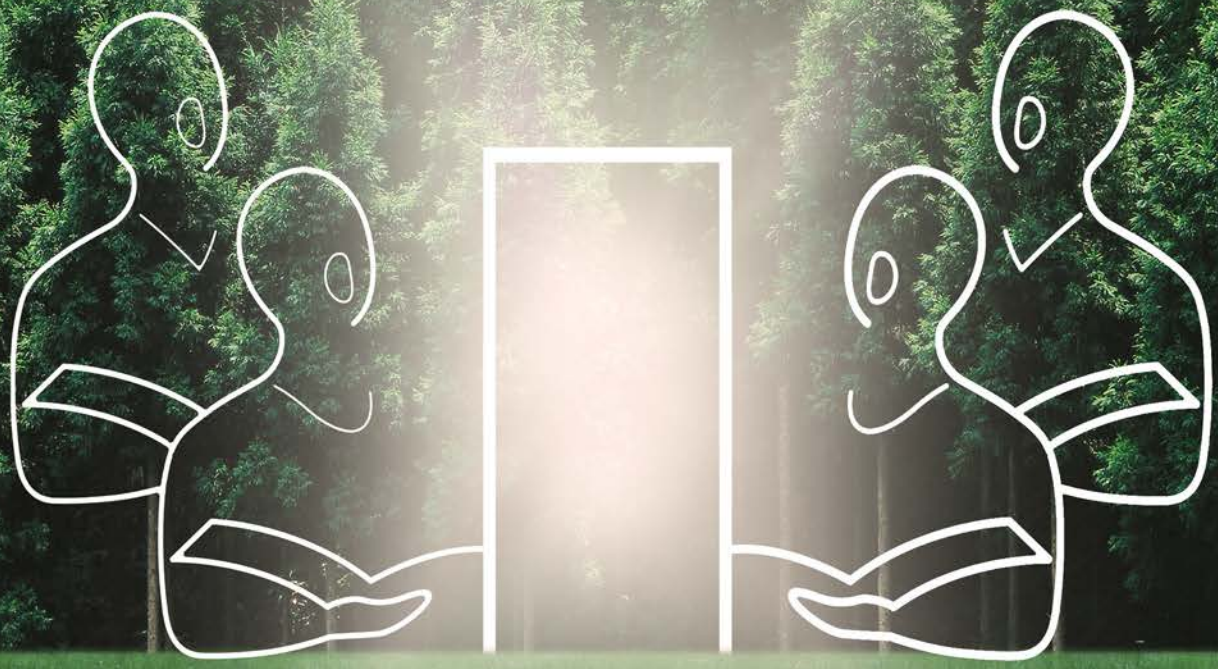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만 7세 이상)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인터파크 www.ticket.interpark.com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STOMP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
명작공연시리즈 8
浪漫
..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올것에 대하여 ⋮ 낭만에 대하여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3주년 기념공연
최백호 콘서트
'낭만에 대하여'
2022. 10.21.(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주최 |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드림컬쳐
입장료 | 일반 3만원, 정기회원 2만원, VIP회원 1만 5천원 예매 |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YES24.COM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2022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8회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19-22, 2022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참가부문

클래식 혼성 & 동성, 민속(전통), 팝 & 아카펠라, 청소년(18세 이하)

제8회 창작합창곡 공모

마감 2022년 5월 31일

초청연주

스윙글스(The Swingles/영국)

바버샵 쿼텟: 애프터 아워스(Barbershop Quartet: After Hours/미국)

텔콤 대학 합창단(Telkom University Choir/인도네시아)

www.busanchoral.org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동성모터스 반도건설 BNK부산은행 삼정 삼정기업 양산병원 YOUNSAN METAL 유엔평화기념관 은산해운항공(주) CHANGCHANG ICT (주)큐브스 LED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2022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연주회

2022년 10월 19일~21일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OPENING CONCERT 개막공연

THE SWINGLES
더 스윙글스

그래미 어워드 5회에 빛나는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2022년 10월 19일(수) 20:00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GALA CONCERT 1

BARBERSHOP QUARTET AFTER HOURS
바버샵 쿼텟 애프터 아워스

바버샵 하모니 소사이어티 2018 인터내셔널 쿼텟 챔피언

2022년 10월 20일(목) 20:00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GALA CONCERT 2

TELKOM UNIVERSITY CHOIR
텔콤 대학 합창단

2021 부산국제합창제 3관왕

2022년 10월 21일(금) 20:00

티켓: 전석 1만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한국문학예술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동성모터스 반도건설 BNK부산은행 삼정 삼정기업 LET'S GO 2025 양산병원 YOUNSAN METAL 유엔평화기념관 온산해운항공㈜ CHANGCHANG ICT ㈜큐브스 노트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제218회 정기연주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찾다

SEASON 3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조원행 거문고 주윤정 해금 강민정 아쟁 홍영혜

국악관현악 "청청" (조원행) 거문고 협주곡 "Contrast" (이경은) 해금 협주곡 "푸른 달" (강상구) 아쟁 협주곡 "여라성" (조원행) 새아세아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 (형호준)

2022. 10. 7 FRI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CONTENTS

10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October 2022 Vol.370

2022년 10월호 통권 37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헌,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9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10 **Column**
희미하게 잔존하는 반딧불이를 위하여

12 **Cover Story**
창단 60주년·50주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32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⑮**
전쟁과 예술 ②
나치의 퇴폐미술전

36 **세계오페라축제 ⑨**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와
페사로(Pesaro)의 로시니 오페라축제

40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서동예술창작공간

43 **Preview**

50 **Issue**
10월에 만나는 풍성한 문화행사

54 **Review**

56 **Program Guide**

70 **New Book**

71 **BSCC News**

10 2022 October 부산문화회관

SUN	MON	TUE	W
휴관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채극장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직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 9월 15일(목)-10월 9일(일) 평일 오전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관람 전 일정 확인 ■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4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땡큐, 돈키호테'**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오후 3:00 ■ 입장료 : 전석 2만원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앙리 마티스:라이** 7월 9일(토)-10월 오전 10:00~오후 ※ 매주 월요일 휴 정상 운영) ■ 입장료 : 일반 1 어린이 ■ 문 의 : (주)가 1661
2 **2022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라 보엠' 15: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김소연 독창회 19:30** 챔 더뉴앙상블(010-3569-0607)	**3**	**4** **CBS콘서트_한국가곡 100주년 기념** **'세상을 품은 우리 노래' 19:30** 대 초대/부산CBS(636-005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14: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5** **제63회 부산피아노듀오협** **'서헤리&성민주 듀오연주** 중 초대/부산피아노듀오 **소호 오페라 코리아 기획** **결혼' 19:30** 챔 전석 3만원/소호 오페라
9 **금난새와 함께하는 추억의 음악여행 15:00** 대 경남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743-3933) **제5회 더 부산 혼 사운드 정기연주회 19:30** 중 더 부산 혼 사운드(010-8733-7438)	**10**	**11** **제17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19:30** 중 무료/한국창작가곡협회(323-8575) **제24회 남구문화원음악회 정기연주회** **'이 가을에 듣고 싶은 음악' 19:30** 챔 초대/남구음악회(010-9287-6350)	**12**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중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16 **2022년 제60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17:00** 중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소프라노 이지헌 귀국독창회 18:00** 챔 YJ클래식스(010-6307-6885)	**17**	**18** **2022 NEW아티스트챌린지 19:30** 중 KNN방송교향악단(950-9568) **이유회 창작현대음악 발표회 19:30** 챔 이유회(010-8784-8638)	**19** **소프라노 김소율 독창회** 중 전석 2만원/(사)부산
23 **2022 제60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19:00** 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나윤채 비올라 귀국독주회 16:00** 챔 전석 1만원/나윤채(010-9147-4529)	**24**	**25** **바리톤 배정행 독창회 19:30** 챔 김효경(010-5182-5194)	**26** **제33회 부산합창제 '합창** **18: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 **암스트롱을 만나다' 1** 중 5만원·3만원/(재)부
3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가곡과 아리아의 밤' 17:30** 중 초대/강학윤 성악클래스(010-9287-6350) **박아연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사 사랑채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D	THU	FRI	SAT
관 기획전 이프 앤 조이 월 30일(일) 7:00(입장마감 오후 6:00) 관(공휴일, 10/3, 10/10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이 1만2천원 아우디움어소시에이츠 -1079			**1** **2022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라 보엠' 15: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연계특강 16:00** 챔 전석 1만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협회 정기연주회** **주회' 19:30** 2협회(010-3815-3190) **연주 시리즈 '피가로의** 나 코리아(010-4809-8588)	**6** **제63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듀오연주회'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3815-3190)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19:30** 챔 전석 1만원/구현진(010-2676-7884)	**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19:30** 중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정승원 첼로 독주회 19:00** 챔 전석 2만원/위드첼로(010-3488-2659)	**8** **부산음악협회 제9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25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전석 2만원/예솔기획(010-4909-7444)
2 **제22회 정기연주회 19:30** 지부(010-6531-0307) **육공연** **악' 10:30** 사업팀(607-3113)	**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09:10, 10:30** 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14** **독우회 제54회 정기연주회 'Liebe und Gedanken' 19:30** 중 초대/독우회(010-8515-2525)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09:10, 10:30** 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1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Ensemble' 17:00** 챔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19:30** 문화(1600-1803)	**20** **부산시립무용단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국악작곡가회 제21회 연주회 '새로운 소리 여행' 19:30** 중 부산국악작곡가회(010-6789-0449) **테너 김화정 독창회 19:30** 챔 초대/김화정(010-9208-9752)	**21** **부산시립무용단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클래식 맛집 세계여행 19:30** 중 BS오퍼스앙상블(010-3156-3156)	**22** **International Artist Series '3인 3색' 19:30** 챔 전석 2만원/더 스튜디오(010-5447-9163)
26 **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관(607-6000) **협공연 '피아졸라, 루이** **9:30** 산문화회관(607-6000)	**27** **제33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8: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나눔행복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아트뱅크코레아(442-1941)	**28** **부산시립합창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및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4인 4색 합창축제'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4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중 부산대학교 음악학과(510-1747) **제9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19:30** 챔 초대/문화공감(0507-1490-8987)	**29**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 17:00** 대 11만원·9만원·6만원·3만원 두남재 ENT(02-6292-9370) **2022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동아대학교 음악학과(200-1760) **제28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17:00** 챔 초대(예약필수)/멜로매니아(010-3885-66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10 2022 October 부산시민회관

SUN	MON	TUE	W
알림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국서련서법교류전** 10월 4일(화)-10월 9일(일) 전시실1, 2 장정희 010-6582-7890 **제60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제'** 10월 14일(금)-10월 16일(일) 전시실1, 2 홍명희 010-3842-7948 **제60회 부산예술제 '부산사진가협회 회원전'** 10월 18일(화)-10월 21일(금) 전시실1, 2 김양호 010-3848-9673	**한국전통도예가전** 10월 23일(일)-10월 30일(일) 전시실1 백문영 010-4502-1442 **보자기 빛이 되다** 10월 24일(월)-10월 30일(일) 전시실2 정진아 010-9616-1616	
2	3	4	5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1979 부마, 그 촛불의** 소 무료/예감엔터테인먼
9 **Two aspects of human and locality dance 19:00** 소 이남영(010-9370-0249)	10	11	1
16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0:00** 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715-1025)	17	18	1
23 **제6회 부산경남발레협회 정기공연 18:00** 대 한국발레협회(010-9633-1682)	24	25 **소방가족 가을 음악회 18:00** 대 부산소방재난본부(010-2232-3904) **장애인 가을 음악회 19:00** 소 한마음장애인복지협회(010-4220-9450)	2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 **배시시 명품극장 '굿모닝** 소 무료(초등학생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
30 **팔레트 뮤직 16:00** 대 컬쳐팩토리(010-4259-1055)	31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연 연습실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D	THU	FRI	SAT
			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15:00 대 전석 2만원(만 3세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기념 창작뮤지컬 시작' 19:30 트(카톡 문의 ID: Duethue)	**6**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 창작뮤지컬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19:30 소 무료/예감엔터테인먼트(카톡 문의 ID: Duethue)	**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11만원·9만원·7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12	**13** 2022년 제60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개막공연 '2030에 유치해' 19:00 대 (사)부산예총(631-1377)	**14** 2022년 제60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블랙스트링 콘서트' 19:3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클래식 라운지'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20:00 소 전석 2만원/더 스튜디오(010-5447-9163)
19	**20**	**21**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 WITH 가을의 향연 11:00 대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010-3838-4291)	**2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갤럭시 일루전 쇼' 17: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가 있는 날_ 독도' 19:00 선착순 예매) 07-6000)	**27**	**28**	**29** 팔레트 뮤직 18:00 대 컬쳐팩토리(010-4259-105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후설' 15: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희미하게 잔존하는 반딧불이를 위하여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교수

지금 세상은 비정상적인 폭염, 홍수, 가뭄, 태풍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가속되는 환경 파괴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5년에 대기에 형성된 오존층에 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파울 크루첸(Paul J. Crutzen)은 인류 문명이 초래한 현시대의 지구환경을 인간세(Anthropocene)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다.

인간세란 인류를 뜻하는 'anthropos'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홀로세(Holocene)가 끝나고 인류로 인해 빚어진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용어이다. 그의 선언적인 발언 이후 인간세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저명 과학잡지에도 등장하는 국제적인 유행어가 됐다. 이 용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온난화로 지구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섯 번째 대멸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멸종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더는 볼 수 없게 사라진 생명들을 심심찮게 손꼽을 수 있다. 음력 삼월 삼짇날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던 물 찬 제비는 못 본 지 오래이고, 철마다 피는 꽃을 찾아 하늘하늘 날아다니던 배추흰나비와 호랑나비 떼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기가 어렵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전봇대 사이를 징그럽게 날아다니던 박쥐들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밤이 되면 뒷동산을 아름답게 수놓던 반딧불이도 이젠 좀처럼 볼 수가 없다.

반딧불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루치올라(lucciola)'는 동시에 약한 빛, 미광을 뜻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어로 '빛'을 뜻하는 'luce' 뒤에 뜻을 약화시키는 지소사 '-ola'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다. 말과 소에 '-아지'가 결합하여 망아지 송아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사학자이자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조르

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은 반딧불이가 만들어내는 작은 형광(螢光)을 '약해진 불 또는 떠도는 영혼'이라 했다. 그는 반딧불 또는 미광을 뜻하는 'lucciola'를 강한 빛인 'luce'와의 대립관계 속에 배치하고는, 그 둘 사이의 위상을 지배와 피지배, 또는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로 파악한다.

위베르만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강한 빛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차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민중은 '약한 빛'이 되어 권력자의 감시를 피해 어둠 속을 떠돌아다닌다. 즉, 위베르만은 지상 세계의 반딧불이들을 위험에 내몰린 민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은근하고 간헐적으로 빛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는 파시즘의 후광을 만드는 강한 서치라이트, 감시탑의 스포트라이트와 대조되는 약한 빛을 가진 존재(lucciano)이지만, 그들은 강한 빛을 피해 어둠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파울 크로첸이 경고하는 지구 생명의 대멸종보다 위베르만의 사유가 희망적인 것은 그가 반딧불이의 소멸을 부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위베르만은 그의 저서 <반딧불의 잔존>을 통해 반딧불의 소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를 제언한다. 반딧불이 소멸된 것은 '사나운'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광명 때문이지, 실제 반딧불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다. 다만 관찰자가 희미한 빛의 공간, 그 가능성의 공간을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딧불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잔존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그는 거듭 말한다. 비록 여러 서치라이트가 사납게 밤을 휩쓸고, 그로 인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연속되더라도, 그 강렬한 광명의 틈새 너머에 있는 어둠의 한복판에서는 반딧불이의 살아 있는 춤이 늘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춤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순수한 욕망의 춤이다. 그들의 춤은 산발적이고, 취약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강렬한 빛에 의해 수시로 소멸되지만, 언제든지 살아있으면서 재점멸한다.

그러나 매스컴은 언제나 강렬하게 빛나는 스타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딧불처럼 한시적이고, 경험적이고, 산발적이고, 미약한 빛보다는 강한 주류의 빛, 초월적인 빛을 긍정한다. 매스컴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강한 빛을 추종하는 한, 그 아래에서 잔존하는 미약한 빛들은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다가 사라져야 하고, 다른 곳으로 도주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를 정복하였던 영광의 순간을 찬란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올해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칸 영화제를 한국영화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 것을 안다. 거기에는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인 <헌트>가 비경쟁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한몫을 당당히 해내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황동혁)을 포함하여 모두 6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K-콘텐츠의 위상을 세상에 알렸다. 이 영광의 순간은 우리 모두 축하하고 자랑삼을 일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의 이면에 어두운 지하의 소극장에서 반딧불이처럼 미약한 불빛을 내며 잔존하고 있는 이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선배들과 검찰사를 성찰하고 '검사 선서'대로 살기 위해 종종거리다 보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둠을 조금이나마 내모는 반딧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사회적 모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 선서'를 읊조리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는 검사동일체라는 케케묵은 조직의 관습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선언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내며 나아가고 있는 부산 출신의 한 검사가 최근에 발간한 자서전의 에필로그에 새긴 한 구절이다. 그렇다. 희미하게 잔존하는 반딧불이는 도처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과거와 미래의 빛나는 틈새에서, 찬란한 왕국의 영광으로부터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언제든지 반딧불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빛을 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보존해야 한다. 미광을 발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새로운 사유를 전달하는 행위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C O N G R A T U L A T I O N S

문화가 있는 도시 부산을 알리다

창단 60주년·50주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을 알려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로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2년 부산시립예술단의 태동을 이끌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의 자존심을 지닌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콘셉트로 하는 기획음악회,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은 이들의 삶을 문화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협연자들과 객원지휘자들을 초청하고, 해마다 부산 출신의 연주자와 작곡가를 발굴, 소개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동안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특히 1997년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7년, 최수열 예술감독이 취임한 후 최수열 예술감독 특유의 모험적인 프로그래밍과 기획력, 젊은 리더십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관록과 만나면서 최근 개성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후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완주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또 다른 도전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을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올해의 예술가' 제도를 도입하여 작곡가 김택수(2021년),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022년)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가져왔다.

1972년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처음 창단된 후 올해로 창단 반세기를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은 정교하고 섬세한 하모니로 부산을 넘어 세계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창단 후 지금까지 180여 회의 정기연주회와 600여 회의 초청 및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여온 부산시립합창단은 특히 지난 1997년에는 전국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공연을 가짐으로써 부산의 합창음악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2009년 1월에는 독일의 번스타인으로 불리는 유명 지휘자 유스투스 프란츠(Justus Frantz)가 이끄는 독일연방필하모니의 초청으로 독일 4대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텐, 뮌헨) 순회 신년음악회에서 매 공연 관람객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았으며, 창단 40주년이던 2012년에는 동유럽 3개 국가(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National Day에 정식 초청받아 문화와 예술의 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3차례의 기념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창단 50주년을 축하한다. 지난 6월,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로 축제의 서막을 연 부산시립합창단은 이기선 예술감독과 역대 지휘자 3인이 한 무대에 서는 '4인 4색 합창축제'(10월 28일)와 송년무대 '하이든 천지창조'(12월 8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합창단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4인 4색 합창축제'는 합창단 창단일인 10월 28일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회갑(回甲)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다

지휘 최수열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오르간 신동일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with 양인모)

- 11월 1일(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전석 5천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 11월 2일(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창단60주년 기념 순회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 양인모

- 11월 10일(목) 오후 8:00
- 서울 롯데콘서트홀

창단 60주년 기념무대 '회갑(回甲)' 가장 부산다운, 개성이 넘치는 프로그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6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무대 '회갑(回甲)'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일인 11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가장 부산다운, 개성이 넘치는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이번 무대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22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협연을 맡아 창단의 의미를 되새긴다. '회갑'의 첫 무대는 스트라빈스키의 기발한 생일축하 음악인 '축하 전주곡'. 우리가 생일파티에서 자주 노래하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익숙한 선율이 숨어있는 일분 남짓의 짧은 곡으로, 스트라빈스키는 명지휘자 피에르 몽퇴가 1955년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 곡을 작곡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1962년,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뉴욕필 청소년 음악회에서 스트라빈스키의 80세 생일을 기념해 이 곡을 연주했고 바로 그 해, 한국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 곡으로 창단 60주년을 자축한다.

이어지는 곡은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으로, 2022년 제12회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연주로 들려준다. 지난 2004년 그라베마이어 작곡상을 수상하며 작곡가 진은숙을 세계적인 작곡가로 도약하게 해준 이 곡은 전통적인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4악장 구성으로, 여러 악기들이 자아내는 황홀한 음향이 현대음악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해준다.

협연자 양인모는 보스턴 글로브지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라는 극찬을 받은 연주자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꿈의 대회라 여겨지는 2015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9년 만에 등장한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1위 우승과 더불어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에 이르는 특별상을 휩쓸며 바이올린 채널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그니쳐가 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교향악단의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연주의 대미를 장식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2017년 최수열 예술감독이 취임한 후 선보인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곡으로, 웅대하고도 풍부한 악상과 치밀한 묘사력, 탁월한 관현악 기법으로 교향시 장르의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특히 이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르간은 차세대 최고 오르가니스트로 평가받는 신동일이 연주한다. 어린 시절 피아노 신동으로 불리었던 협연자 신동일은 13세에 오르간을 시작, 2006년 제20회 그랑프리드 샤르트르 국제 오르간 콩쿠르 대상을 비롯해 1996년 무사시노-도쿄 국제 오르간 콩쿠르, 1999년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 2001년 제21회 St. Albans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신동일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협연자 양인모의 오픈 리허설 현장
미완성 음악회

정기연주회 공연 하루 전날인 11월 1일에는 '미완성 음악회'를 통해 제593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다. 오픈 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이날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제593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진은숙 '바이올린 협주곡'의 리허설을 통해 최수열 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다
창단 60주년 기념 순회연주회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아 부산을 넘어 국내 및 세계로 도약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1월 1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창단 60주년 기념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롯데문화재단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며 그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로, 앞서 열렸던 제593회 정기연주회의 '축하 전주곡'을 제외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관객과 만난다.

창단 반세기를 기념하고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제시하다

제10대 수석지휘자 **이기선**

제4대 수석지휘자 **김광일**

제7대 수석지휘자 **김강규**

제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제187회 정기 및 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 10월 28일(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전석 1만원

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역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합창축제

부산시립합창단이 첫 발을 내딛었던 50년 전, 그날인 10월 28일에는 창단 반세기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4인 4색 합창축제'가 펼쳐진다. 지난 50년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며 부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 현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이기선 예술감독(제10대 수석지휘자)과 4대 수석지휘자 김광일, 7대 수석지휘자 김강규, 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등 역대 지휘자 3인을 초청, 그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1부에서는 김광일, 김강규 지휘자의 무대가 펼쳐진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김광일은 지난 1993년 당시까지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렀던 부산시립합창단을 전문합창단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을 나온 후에는 시카고 챔버 코랄 음악감독, 마산시립합창단 지휘자를 거치면서 600회가 넘는 연주회를 지휘했으며, 부산 MBC FM '나의 음악실', '스테레오 명곡순례' 등 음악 프로그램의 해설가로,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부산 음악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광일 작곡의 '축일미사곡(Missa Brevis)' 중 'Kyrie', 'Gloria'와 서덕출 시인의 5편의 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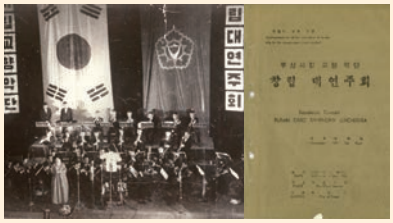
에 의한 합창모음곡 '눈꽃송이'(김기영 편곡)를 들려준다.
이어서 지휘자 김강규의 지휘로 가요 '가시나무'(백현주 편곡)와 윤동주 시에 곡을 붙인 '바람이 불어'(진소영 곡), 그리고 2021 부산국제합창제 창작합창 부문에서 2위 입상한 '아리랑'(최재혁 곡)을 초연한다. 지휘자 김강규는 대구시립합창단 트레이너를 거쳐 지난 1999년 부산시립합창단 제7대 지휘자로 취임한 후 2011년까지 12년 동안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었다. 그는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으며 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과 더불어 합창음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부산합창올림픽 예술부장(Artistic Director)으로, 한국을 찾아온 전 세계 합창단원들이 모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부산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예술위원, 부산국제합창제 심사위원, 전국시립합창단 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강규 지휘자는 현재 한국지휘자협회의 이사, 한국합창조직위(부산국제합창제) 예술감독, (사)승인문화재단 예술감독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부 무대에서는 전상철, 이기선 지휘자의 무대가 이어진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로도 활동하며 부산시립예술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전상철 지휘자는 그동안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대만, 홍콩, 러시아, 아르헨티나, 체코 등 30여 개 도시에서 초청지휘를 가졌으며, 국내·외 다수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상철 지휘자는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고신대학교 합창지도 외래교수, 부산콘서트콰이어, 더울림합창단 지휘자, 소명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무지카 아트홀 음악감독, 부산국제합창조직위원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창 발전에 앞장서오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Locus iste'(브루크너 곡) 및 이스라엘 민요 'Hava Nageela', 그리고 한국민요연곡 '아리랑, 도라지타령,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김일권 편곡)을 들려준다.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무대는 이기선 예술감독이 꾸민다. '깊이 있는 음악,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알려진 이기선 예술감독은 총신대학교 교수, 성남시립합창단 음악감독 등 후학 양성과 프로합창단 연주를 통해 한국 합창계의 거목으로 칭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부산시립합창단 제10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짧은 시간에 부산시립합창단을 한국 정상의 합창단으로 성장시킨 이기선 예술감독은 오랜 공부와 경험에서 축적된 작품에 대한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북유럽 합창음악처럼 윤택하고 깊이 있는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해주고 있다. 항상 새로운 음악을 소개해온 이기선 예술감독은 이번 무대에서 에릭 에센발즈 'Only in Sleep', 올라 야일로 'Northern Light'와 작곡가 이진실의 '두껍아 두껍아'를 초연으로 들려준다.

1960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60년史



창립 대연주회(1962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부산시향)의 창단연주회는 1962년 12월 7일 제일극장에서 열렸다. 11월에 정식 창단한 부산시향이 바로 창단공연을 가진 데는 이듬해인 1963년, 부산이 직할시 승격을 앞둔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 부산시향의 역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남은 공연 프로그램북을 보면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립 대연주회'라는 제목 위로 '직할시 승격 기념'이라고 적혀 있다. 프로그램북에 따르면 악단은 당시 악장을 포함한 4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특하게도 성악 단원도 포함되어 있다.

초대지휘자 오태균

1962년 부산시향 초대지휘자인 오태균(1922~1995) 선생은 부산음악의 역사와 부산시향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바이올린을 공부했던 오태균은 오디션을 거쳐 서울교향악단의 연주자로 입단했다가 한국전쟁 중에는 해군정훈음악대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4 후퇴로 부산에 정착한다. 이후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오태균은 부산대 관현악단을 창단하는 등 부산에서 관현악 운동을 주도하다 1962년 11월 2일, 부산시향 창단과 함께 초대 상임지휘자를 맡았다.

왕자극장

1960년대 부산시향 정기연주회는 주로 남포동 극장가에서 열렸다. 클래식 음악에서 중요시되는 음향은 차치하고 당시에는 일단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곧 부산시향의 정기연주회가 오르는 '정식' 공연장이 되었다. 악단으로서의 구색은 갖췄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었던 관계로 부산시향은 1973년 부산시민회관에 터를 잡기 전까지 여러 극장을 전전하며 정기연주회를 선보였다. 부산시민회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부산시향의 정기연주회가 가장 많이 열렸던 극장은 남포동에 위치한 874석 규모의 왕자극장이었다.

창단 10주년기념
제68회 정기연주회

1972년 1962년 창단한 부산시향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산시향 창단에 산파역할을 하며 부지휘자로 활약하던 한병함이 1월 11일 제2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다. 그 해 12월 20일, 부산시향 창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제68회 정기연주회에서 한병함과 부산시향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의 국립교향악단이 베토벤의 '합창'을 선보였던 것이 1974년인데 비하면 빠른 행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2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이 오케스트라와 대형 합창이 함께할 수 있는 레퍼토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1973년 이해 10월 10일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은 부산시향에 새로운 터전과 환경을 제공한다. 종합공연장인 부산시민회관은 당시 공연 시설과 사정이 열악했던 부산에 최초의 대규모 공연 시설로 화제를 모았다. 부산시향은 부산시민회관 개관 후 약 1주일 뒤인 10월 16일 제74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였고 이후 모든 정기연주회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제100회 정기연주회

1976년 부산시향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선보인 부산시향은 100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은 1976년 7월 30일에도 베토벤 '합창'으로 기념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중앙성당합창단, 그리고 타이베이교사합창단이 함께 했다. 당시 배포된 프로그램북에는 부산시향 창단 때부터 1976년까지 선보인 정기연주회와 특별공연의 일자·공연명·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부산시향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1970

1980

서울연주회
(1984년, 세종문화회관)

1983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부산시향은 80여 명의 정단원과 안정적인 3관 편성을 갖추고 1년에 10~12회의 정기연주회 및 다수의 특별 연주회를 가지면서 교향악단의 운영도 정상적인 궤도에 접어든다. 이 무렵부터는 차츰 전국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국립극장(1983년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1984년 12월 8일) 공연 이후 여러 차례 서울 공연을 개최했고 1985년에는 지방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음악제(현 대한민국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았다.

제216회 정기연주회

1988년 10월 28일에 열렸던 제21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실비아 카두프가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올랐다. 스위스 출신의 카두프는 여성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정규 오케스트라(독일 졸링엔 시립관현악단, 현재는 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부산시향 역사에서도 최초로 포디움에 오른 여성 지휘자였다. 실비아 카두프에 이어 국내 여성 지휘자로는 김경희가 1996년 부산시향을 지휘했다.

제221회 정기연주회

1989년 단원들의 분규와 지휘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교향악단이 분열될 위기에 놓이면서 국내 지휘자로는 단원들의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결국 외국인 지휘자의 영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수석지휘자 후보에 오른 세 명의 외국인 지휘자 중, '베토벤 시리즈'로 진행된 1989년 4월 18일 제221회 정기연주회에서 처음 부산시향을 지휘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마크 고렌슈타인이 5대 수석지휘자로 선정된다.

창단 30주년 기념
제268회 정기연주회

1992년 창단 30주년을 맞은 해로 객원 지휘자 체제를 운영하며 신임 지휘자를 물색하던 중 단원들이 지지한 블라디미르 킨이 6대 수석지휘자로 선임된다. 킨의 정식 취임은 1993년 2월에 이루어졌지만 1992년 12월 7일,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제268회 정기연주회부터 수석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술의전당 개관
기념음악회

1993년 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음악회에 지방 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연주한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킨은 1993년 4월 30일 부산시향-일본 규슈교향악단 합동 연주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안타깝게도 6월 3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부산시향은 후임자로 몇몇 지휘자를 놓고 고심하던 중 9월, 제278회 정기연주회에서 세상을 떠난 킨을 대신해 객원 지휘에 나선 반초 차브다르스키를 제7대 수석지휘자로 영입한다.

1990

제297회 정기연주회

1994년 옛 유고슬라비아의 마케도니아 출신인 반초 차브다르스키는 1994년 1월 제285회 정기연주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한다. 1995년까지 비록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3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말러 '교향곡 제1번'을 부산 초연(제297회 정기연주회)하고 20세기 음악도 다루면서 부산시향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곽승 취임연주회

1996년 지휘자 곽승이 8대 수석지휘자로 부임한다. 당시 텍사스 오스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등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곽승은 빈 고전파 음악부터 20세기 음악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프로코피예프의 '알렉산드르 넵스키(Alexander Nev-sky)' 한국 초연(1996년 7월 12일), 찰스 아이브즈(Charles Ives)의 '대답 없는 질문(The Unanswered Question)' 부산 초연(1998년 2월 26일) 등 굵직한 흔적을 남겼다.

2000

미국순회연주회(1997년)

1997년 곽승과 부산시향은 그 해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창단 35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갖는다. 미국 순회 연주회는 무엇보다도 단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얻게 해준 계기가 된다.

2004 송년 제야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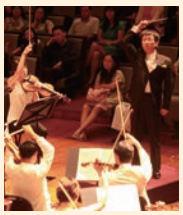
2004년 부산시향은 창단 후 처음으로 12월 31일 '송년제야 음악회'를 연다. 21세기 들어 부천 필하모닉, 예술의전당이 한 해 마지막 날 자정을 전후한 제야 음악회를 성료한 영향이 부산까지 이어진 것이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취임연주회

2005년 부산시향은 1월 알렉산더 아니시모프를 새 수석지휘자로 임명한다. 취임 공연은 그 해 6월 9일에 열렸고, 일주일 후 열렸던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도 취임 공연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리 신차오 취임연주회

2009년 신년 벽두에 부산시향 신임 수석지휘자로 20대에 중국국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에 오른 리 신차오가 선임된다. 이듬해 3월 정기연주회에서는 말러 교향곡 5번을 선택해 관현악 역량의 지표를 말러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12월에도 20여 년간 교류해온 규슈 심포니 단원을 규합한 연합 악단을 구성,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했다.


중국투어

2012년 리 신차오와 부산시향은 창단 50주년을 맞아 8월에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아우르는 투어를 가지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함께 기념한다.

최수열 취임연주회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경영을 맡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8월, 제11대 수석지휘자로 최수열 전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선정한다. 2017년 가을,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최수열 지휘자는 부산시향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제를 실시하면서 차기년도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을 한 해 전 4분기에 발표한다. 특히 2017년 시작되어 2018년 2월 재개된 슈트라우스 사이클은 최수열 감독의 장기가 극대화된 프로그래밍으로 2019년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짓는다.

미완성 음악회 유튜브로 상영된 실내악공장

2020년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최수열 예술감독의 의욕적인 프로그래밍이 돋보인 한 해다. 사전 오픈 리허설을 '미완성 음악회' 형태로 바꿔 전공자와 애호가는 물론 클래식 초심자도 악단의 속살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20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시향은 2020-22년 3개년 계획으로 <라벨 사이클>을 수행하고 탄생 250주년 기념으로 베토벤 11개 작품을 1년간 완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부산문화회관이 폐관하면서 시향 공연은 중단되고 4월 말 무관중 형태의 소규모 앙상블 공연 '실내악 공장'을 갖는다.

2021년 '올해의 예술가' 김택수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던 2021년, 상주 아티스트 개념의 '올해의 예술가'로 작곡가 김택수를 선정해 부산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을 위촉한다. 이 과정을 통해 탈고된 악곡 '짠!!'은 2021년 영상으로 제작되고 그 해 4월 정기연주회에 직접 등장해 관객에게 인사한다. 2022년 '올해의 예술가'는 파가니니 콩쿠르의 우승자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이다.

2010-20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립합창단 50년史

1970

창단연주회(1972년)

1972년 부산시립합창단, 1973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며 부산 합창의 새장을 연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비록 미흡한 환경 속에서 동호인의 합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출발이 곧 우리나라 프로 합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이후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이 이어서 창단된다. 초대 지휘자는 부산시립합창단 창단에 주축이 되었던 작곡가이자 팀파니 주자였던 故 임종길 교수가 맡았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공연은 이듬해 4월 27일 왕자극장에서 열렸다.

초대 지휘자 임종길

1972년 창단 이후 매 공연마다 지휘자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기의 지휘 체계가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다. 창단연주회 임종길, 제2회 강기성, 제3회 이규택으로 지휘자가 바뀐 이후 17회까지 이규택의 지휘가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몇몇 프로그램 북이 유실되어 당시 기록의 보관 사정도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초청음악회(1979년, 포항)

1976년 7월 3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00회를 기념한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지휘 이규택)은 타이베이교사합창, 중앙성당합창단과 함께 연합 합창단으로 무대에 오른다. 시립합창단으로선 창단 이후 가장 큰 무대였다.

1979년 9월 포항에서 특별공연이 열린다. 이는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이후 첫 지방 나들이로, 포항시민회관에서 총 2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첫 서울 순회연주회가 이어지면서 두 공연을 통해 부산시립합창단의 존재감을 알리게 된다.

재부작곡가의 밤(1982년)

1980년대 특히 주목할 것은 제15회 정기연주회(1980년 10월 24일)에 '부산시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재부(在釜) 작곡가의 작품들을 소개한 것이다. 합창단 창단 후 집중적인 창작 발표를 한 첫 사례로 보인다. 이 후 1982년 6월 30일 제18회 정기연주회에서 볼 수 있듯이 '재부(在釜) 작곡가의 밤'은 점차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83년 제4회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 10월 4일 경축공연으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 올린다. 평소에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 탓으로 용이치 않았을 오페라가 '시민의 날'이란 잔칫날을 맞아 특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7회 부산합창제 (1993년)

1985년 부산합창제의 출발은 괄목할 비전 중 하나이다. 중·고·대학을 넘어 일반인이 참여하는 합창제가 열린 것은 합창계의 큰 도약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0월 열리는 2022년 제33회 부산합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열린다.

부산시향 제185회 정기연주회 '합창'

198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12월 18일 부산시향 제185회 정기연주회에 출연, 부산시향과 함께 베토벤의 '합창'을 무대에 올린다. 사흘 뒤인 12월 21일에는 서울에 초청받아 바흐 탄생 3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연주하고 이어 12월 24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직할시 예술단체의 '1985 송년예술제'에도 참여한다.

1980

199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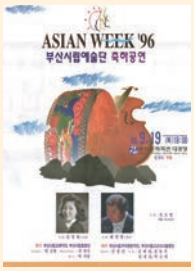
제56회 정기연주회

제57회 정기연주회

1992년 9월 17일 제56회 정기연주회는 로시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최초 공연으로, 김명규 지휘자가 객원지휘를 맡았다. 제5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창단 20주년을 맞아 이종구의 창작 가극 '환향녀'를 무대에 올린다. '환향녀'는 합창곡에서 출발하여 오페라 발전을 시도한 작품으로, 국립극장 무대에 올랐던 것을 개작하여 오페라로 극화한 작품이다.

제67회 정기연주회

1994년 9월 1일 제6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수원시립합창단의 조인트 콘서트가 이뤄지면서 이상열 지휘자와 이상길 지휘자가 한 무대에 섰다. 이어서 10월 14일 제6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현대합창 명곡의 밤'이란 제목으로 서울에서 활동한 백효죽 지휘자를 초청한다. 서울시립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이상열 지휘자 취임 이후 타시도 단체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졌고, 다수의 음반들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제78회 정기연주회 아시안위크 96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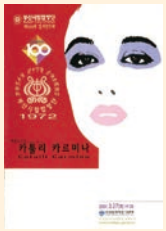
1996년 7월 12일 제78회 정기연주회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320회 정기연주회와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프로코피에프의 칸타타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한국초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 해 연말인 12월 5일, 무대에 오른 제8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교회음악의 최고 단체로 평가받은 서울모테트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이뤄진다. 그래 9월에는 부산이 아시안의 중심임을 느낄 수 있는 아시아위크와 부산국제영화제, 두 개의 큰 국제행사가 개최된다. 9월 19일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 위크를 축하하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축하공연에서는 여성지휘자 김경희가 무대에 선다. 이어진 11월 14일, 한국가곡과 민요의 밤은 JCI 부산세계대회를 기념한 콘서트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호주, 뉴질랜드 공연(1997년)

제83회 정기연주회

1997년 합창단 창단 25주년을 맞아 창단 이후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해외 초청연주를 갖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에는 로마음악협회의 초청으로 로마 바티칸시국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연주회를 갖는데, 동양권 합창단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곡을 노래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2009년에는 합창 강국인 독일의 5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함부르크)에서 순회연주를 갖는다. 베를린 필하모니 홀과 쌍벽을 이루는 콘체르트 하우스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이 초연되었던 역사적인 극장으로, 이곳에 부산시립합창단이 동양인 최초로 입성한 것은 부산의 위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드높이는 일이었다. 또, 11월 4일에 열린 제83회 정기연주회는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인 이기선이 객원 지휘를 맡았던 공연으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편'을 연주했다. 11월에는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단체가 베토벤 '합창'이 대구시민회관 무대에 오른다.

2000



제100회 정기연주회

1999년 10월, 김강규 지휘자가 6대 지휘자로 취임한다. 2001년 3월 27일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맞아 칼 오르프의 '카툴리 카르미나'를 무대에 올린다. 12월 17일 제10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제1기 시민합창교실 수강생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시민합창단은 이후에도 매년 '송년 시민 대합창'이라는 타이틀로 무대에 올라 합창단과 호흡을 맞췄다. 이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구심점 역할을 하며 합창 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80 가요합창 (2005년)

2005년 10월 20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APEC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APEC 칸타타'라는 대규모 창작합창곡이 무대에 올려진다. 그 해 김강규 지휘자와 부산시립합창단은 새로운 시도로 '7080 가요합창'을 무대에 올린다. 장르의 틀을 깨는 것을 금기로 여겼던 시절에 공공의 합창이 '가요 합창'이라는 도전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합창단의 첫 시도는 타 시립합창단에 영향을 끼쳤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무대가 되었다.

제149회 정기연주회

2012년 6월 22일 오세종 지휘자가 7대 지휘자로 취임한다. 오세종 지휘자는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발하고 발랄한 무대를 만들고자 새로운 콘셉트의 공연을 선보인다. 제149회 정기연주회(2014년 3월 27일)에서는 대중가요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곡을 프로그램에 배치, 장르의 벽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며, 이어진 제15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각기 다른 종교의 음악을 한 자리에 모아 들려준다.

세월호 2주기 추모음악회

2015년 7월 위촉된 전상철 지휘자는 그 해 11월 24일 제159회 정기연주회에서 헨델의 '메시아'로 취임 연주회를 가진다. 4월 16일 특별연주회에서는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연주는 추모음악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부산의 현실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연주회로 평가된다.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2017년 초대형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무대에 오른다. '레미제라블'이 3년간 연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합창단은 계속해서 2019년 가족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2021년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을 선보인다. 특히 '아, 나의 조국'은 뮤지컬 칸타타라는 새로운 장르와 함께 소재에 있어서도 잊어서는 안될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무대 위에서 풀어내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180회 정기연주회

2019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 선정을 위한 음악회가 이어졌고, 3년간 공백이었던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에 이기선 지휘자가 선임된다. 제179회 정기연주회를 취임연주회로 부산시민들과 마주한 이기선 지휘자는 그 해 연말, '최석태의 부산 칸타타'로 또 한번 힘찬 출발을 알린다.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 '카르미나 부라나'

2022년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첫 공연은 제6회 제주국제합창제로, 부산시립합창단은 합창제 첫날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4월에는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처음으로 통영국제음악당 무대에 오른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무대가 6월 23일과 24일 열린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이다.

2010 20

※ 이 내용은 10월 말에 발간예정인 <교향악단 60년사>, <합창단 50년사>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 좌담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부산시향)이 올해로 회갑(回甲)을 맞았다. 지난 1962년 창단한 부산시향은 1956년 국립으로 창단된 KBS교향악단, 1957년 서울시에 의해 창단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향악단이다. 부산시향은 초대 지휘자 오태균, 2대 한병함을 거치면서 1974년 부산시민회관으로 터를 옮겼고, 3대 이기홍, 4대 박종혁과 함께 발전을 위한 내적 토대를 마련했다. 1988년 부산문화회관 개관과 더불어 전문 오케스트라의 형식적 면모를 완성했으며, 이어 국내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과 블라디미르 킨, 반초 차브다르스키, 곽승,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리 신차오 등의 지휘자가 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7년부터는 11대 예술감독인 최수열 지휘자가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으며, 최수열 예술감독 특유의 모험적인 프로그래밍과 기획력, 젊은 리더십이 부산시향의 관록과 만나면서 최근 개성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9월 6일, 부산시향 창단 60주년을 맞아 열렸던 좌담회를 통해 부산시향의 지나온 60주년을 되돌아보고 100주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본다.

참석자 명단

사회
윤상운(부산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 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원로 단원
전태(비올라), 박화남(바이올린), 안영국(오보에)
김영근(더블베이스), 김지세(바이올린), 정우영(클라리넷)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수열(예술감독), 이은옥(부악장), 이광식(총무)

(왼쪽부터) 윤상운, 전태

윤상운 저는 20여 년 전쯤 부지휘자로 부산시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부산시향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이는 부산시향 창단 때부터, 여기 계신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교향악단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초석을 잘 깔아주시고 혼신의 힘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산시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간략하게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 태 부산시향은 1962년 창단되었는데, 저는 1965년 7월에 입단하여 1979년 유학 가기 전까지 단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를 잠시 돌이켜보자면 부산시향 창단 전에 부산방송교향악단이 먼저 창단했고, 부산시향 창단 멤버이자 2대 지휘자였던 한병함 선생이 부산방송교향악단 지휘자로 계셨죠. 이후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던 오태균 선생이 당시 본인의 자택까지 팔며 부산시향을 창단하고 초대 지휘자를 맡으셨습니다. 창단 당시만 하더라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처음에는 단원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 어디 ESS 학원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장소를 빌려서 이리저리 옮겨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향이 창단됐으니 홍보 활동을 한답시고 학교, 시내 등 여러 장소를 다니며 임시연주회를 가졌던 기억도 납니다.

윤상운 당시 부산시향이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전 태 오태균 선생은 베토벤 작품을 많이 했어요.

김영근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 부산시향이 마산시 초청 공연을 갔는데 하루에 세 번 공연을 했다고 해요. 시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세 공연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전 태 그게 1967년도인데, 당시 초대를 받았지만 홍보를 위해서 세 번 연주했어요. 뭐 지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단원들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산에 교향악단이 없었으니까, 처음 교향악단이 가서 연주를 하니 관객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죠.

윤상운 당시 부산 관객들의 호응은 어떠했나요?

김지세 제가 10살 때 부산시향이 창단됐는데, 중학생이 되고나서부터 부산시향 연주회를 자주 보러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원보다는 관객으로 부산시향을 먼저 만났죠. 좀 전에 전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시 주요 레퍼토리가 하이든 그리고 베토벤이었어요. 오태균 선생님이 베토벤을 참 좋아하셨죠. 그때는 주로 악보를 보는게 보편적이었는데, 베토벤 연주를 할 때면 보면대의 악보를 치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공연 보러 다니던 왕자극장에서는 하루에 두 번 연주가 열렸어요. 낮에는 명색이 학생 공연이고 밤에는 일반 공연이었는데 저는 두 번 다 봤어요. 재미있

어서. 한 번 보고 좋으면 또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보고. 그때 표를 사러 가면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짝~ 섰는데, 어떨 때는 극장 전체를 거의 다 두를 만큼 관객들의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관객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성직자도 있었고, 관객층이 아주 다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극장이니까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해요. 그 당시 크레졸이라고 소독약이 있었는데, 지금도 특유의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추억들이 하나둘 생각납니다.

윤상운 당시는 클래식 음악을 접했던 사람이 많지 않으니 관객들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김영근 오태균 선생이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당시 불란서 국립발레단이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기 위해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족한 연주파트는 피아노로 대체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공연장이 없어서 급하게 제일극장을 하루 빌려 공연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극장에서는 쇼도 열렸기에 무대 상태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오케스트라가 밑에서 반주를 하고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데, 무대의 동선이 너무 짧다보니 발레리나가 춤을 두 번 추자 벽에 그대로 부딪혔다네요. 그리고 영화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무대 바닥이 깨끗하지 않아서 백조가 한 번 구르고 나니 바닥의 먼지가 싹 없어졌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더 웃긴 건, 당시 무대 뒤편에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을 갖다줬는데, 그때 그 요강이 외국인의 눈에는 뭔가 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였는지, 발레단이 돌아갈 때 그 요강을 다 들고 갔다고 해요. 지금에서야 그저 웃기고 황당하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죠.

박화남 김지세 선생님이 왕자극장을 언급하시니 저도 그때가 생각나는데,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기는 참 어려웠죠. 그러다 왕자극장에서 오페라를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열악하여, 당시 촛불을 켜놓고 연주하다가 악보에 불이 붙는 바람에 불 끈다고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김지세 저도 부산시향 공연을 보러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연주회 하다가 정전되는 일이 많았고, 중간에 불이 꺼져서 캄캄한 상황이 몇 번 되풀이되고는 했죠. 언젠가 연말공연을 보러갔는데 공연의 레퍼토리가 '고별'이었어요. 하이든의 '고별'. 그런데 '고별' 연주할 때 정전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단원들이 촛불을 켜놓고 연주하는데, 그만 악보에 불이 붙어 연주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는 제가 관객이었는데, 부산시향 단원이 되고나서 제가 박종혁 선생과 '고별'을 연주하는데 그때 제 눈에 불 탄 악보가 보이더라구요. 아, 저게 그때 그 악보였구나. 저로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대의 경우도 요즘과 달리 주물로 만들어져서 무겁기도 참 무겁고, 또 넘어지면 우당탕 소리도 크고…, 그때만 해도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김영근 보면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이자면, 부산시향이 부산시민회관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시에서 얼마나 후원을 안 해줬으면 철근 있죠, 그 공사장 철근. 이것을 잘라 용접한 후 그 위에 알루미늄판를 용접해서 붙었어요. 그게 보면대입니다. 근데 그게 색이 까맣고 보기 싫으니까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걸 보면대로 사용했어요. 문제는 어디 초청공연을 가게 되면 보면대를 가져가야 하는데 또, 차량 지원이 없으니 우리 단원들이 그걸 직접 들고 버스를 탔어요. 제가 더블베이스 주자였는데 악기에 보면대까지 들고 가려면…. 여기에 비가 오거나 바람까지 불면 참 속수무책이었죠.

김지세 에피소드를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왕자극장에서 연주할 때인데요, 피아노 협연이 있었는데 당시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서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를

(왼쪽부터) 박화남, 안영국, 김영근

했어요. 게다가 퍼스트 바이올린이 제일 뒤에서 연주했어요.

윤상운 무대 앞에 자리가 안 돼서요?

김지세 그렇죠. 그때 베버의 '소협주곡'을 연주했는데, 그 곡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 지휘자를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랜드 피아노는 동아대학교 강당에서만 구경을 했지, 부산에 그랜드 피아노가 없었어요.

김영근 1973년에 부산시민회관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비로소 연습실이 생겼고,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연습실이 부산시민회관에 있습니다만, 오전에 교향악단이 사용하면 오후에는 무용단이, 그리고 무용단이 일주일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 비는 틈을 이용해 합창단이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원들이 서로 미팅도 하고 또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시민회관 오기 전, 연습실이 없던 시절에는 노동회관에 갔다가 왕자회관에 갔다가, 아님 또 다른 극장에 갔다가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연습을 하곤 했죠.

박화남 부산 시내에서 극장이라는 극장은, 작은 극장이든 큰 극장이든 부산시향이 연주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저도 극장에서 몇 번을 협연했지만 연습하는 장소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김지세 그리고 단원들이 연미복을 처음 입었을 때가 부산시민회관 시절이었어요. 그전에는 양복에 검은 보타이로 대신했죠.

김영근 또 말씀드리고 싶은게, 제가 1976년도 당시 입단을 했을 때 버스 차장의 월급이 6만 6천 원이었어요. 당시 제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모 중학교에서 월급으로 8만 8천 원을 주겠다며 교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원으로 받은 첫 월급이 1만 6천 원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지세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원로 선생님들도 당시 다 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주가의 길로 가야겠다 해서 학교에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국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급여도 급여지만 보너스도 단 200%였어요. 추석에 한 번 받고, 설에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당연히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당시 교사를 하며 단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근 당시 부산시향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젊은 친구가 한 네다섯 명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교사 봉급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들의 봉급에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단원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타깝더군요. 교사들과 비교해봐도 연금에서 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김지세, 정우영

박화남 1960~1970년대 중반, 그 당시에는 단원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악기 연주자들은 연습 마치면 학생들 몇 명 모아서 가르치고, 관악기 연주자들은 소위 밤무대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서 연주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오보에나 바순, 뭐 이런 목관악기로는 밤에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색소폰 같은 악기를 혼자 터득하기도 하고 첼로 연주하던 분은 베이스를 배워서 생활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윤상운 연주력 향상이라는 게 지휘자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지휘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향악단을 거쳐간 지휘자마다 각자만의 강점들이 있겠지만 그 시대마다 원하는 지휘자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최수열 예술감독님도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이것이겠다고 조금 더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우영 선생님은 단원으로 있으면서 몇 분의 지휘자와 함께했습니까?

정우영 그래도 한 대여섯 분. 박종혁 선생부터 마크 고렌슈타인, 블라디미르 킨, 반초 차브다르스키, 곽승,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까지 모두 여섯 분이네요.

김지세 지금에서 회상해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도 있고 밤을 새워가며 할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부산시향의 지휘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거 같아요. 창단 60년에 벌써 지휘자 11명이니. 지휘자의 짧은 임기는 부산시향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향악단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프 판 즈베덴이라고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서울시향 지휘자로 온다는 보도도 있고, 너무 자주 바뀌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근 부산시향의 60년 역사에서도 30년 전은 격동의 시대였다고 봅니다. 당시 문제가 뭐냐면, 월급은 박봉인데 역사로 치면 120년이나 앞선 뉴욕 필 수준의 연주를 부산시향에게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 언론이 혹독하게 비판을 하자 덩달아 운영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도 지휘자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말도 못하게 커졌죠. 그 정점인 1976년에 제가 오디션을 거쳐 부산시향에 들어왔어요. 이후 1978년과 1979년, 연이어 오디션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지휘자와 단원 사이에 반목이 커지면서 당시 지휘자였던 이기홍 씨가 오디션을 빌미로 무려 28명의 단원을 해촉합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단원 28명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가 12·12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우리가 집회 결사를 했다 하여 저는 보안대에 잡혀가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교향악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했는데, 폭행과 고문을 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격동의 시절에 있었던 부산시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100년을 생각한다면 단원들이 최상의 대우를 제공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이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상운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원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켜온 것 같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선배님들도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 봅니다.

전 태 음악이라는 것이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단원들은 지휘자가 이끌어주면 됩니다.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연

구하고 단원들을 훈련시키면 다른 교향악단에 뒤질 게 없다고 봅니다.

박화남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휘자라는 분들이 정식적으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지휘자를 모셔 오면 연주가 다르니까 관객들이 상당히 감동하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지휘자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로 세계에 이름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휘자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지휘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윤상운 지휘 분야도 마찬가지고 연주 분야 역시 급속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음악을 하는 일이든 행정을 하는 일이든 계속 발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지만 한다는 것은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음악인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이나 홍보하시는 분들, 다 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근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고 저에게 부산시향의 혁신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단원들 월급을 30% 올려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향악단이 움직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서포트해라. 교향악단이 매일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니 정작 극장에서의 울림과 사운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외국의 경우를 들자면, 빈 필도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데, 만약 연습이 있는 날 저녁에 다른 공연이 있으면 스태프들이 연습에도, 공연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 여건을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부산문화회관은 오전 중에 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교향악단이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라도 서포트 해줄 사람을 더 뽑아야 해요. 그리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부산시향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향 정기연주회가 1년에 몇 번입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철밥통이고 행복한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수열 지휘자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싶은데, 교향악단 연주 횟수를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합니다. 시립단체니까 각 구별로 있는 구 문화회관도 가고 또, 부산을 대표하니까 여러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연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최수열 지휘자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지금 부산시향 지휘자로 있으면서 아쉬운 점, 이런 건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최수열 제가 부산시향 지휘자로 있은 지 이제 횟수로 6년차인데요, 처음 1~2년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코로나 2년 전부터는 계속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이제서야 자리를 만들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 중에 너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급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주셨지만, 이것은 부산시향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향악단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는 저희 같은 단체들은 예술가들이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걸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 돈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부산시, (재)부산문화회관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예산은 동결이고, 그나마 깎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특히 7개 예술단체 중에서도 교향악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관객 점유율과 유료 판매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연 횟수도 제일 많습니다. 6개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도 정기연주 횟수가 가장 많은 게 저희 부산시향입니다.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기획연주회 같은 공연도 꾸준히 하고, 다른 광역시보다 수도권에서 가장 초청을 많이 받는 오케스트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저 친구는 젊은 지휘자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왔으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경우, 여기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만약 제가 그랬으면 부산시향에 오지 않았을 거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산시향에 오기 전, 두세군데 다른 지역의 교향악단에서도 제안받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악단이 매력적인 단체도, 그 지역이 매력적인 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있을 때부터 부산시향은 제가 먼저 짝사랑했던 오케스트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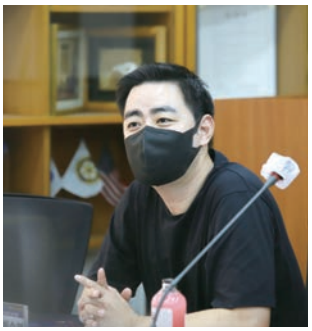
윤상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부산시향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죠.

최수열 지금 부산에 공연장이 두 곳 생기는데, 그중 한 공연장이 부산시향 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저희가 상주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감하긴 한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클래식 전용홀을 갖춘 오케스트라는 대구시향 정도인데, 물론 대구시향도 새로운 공연장이 아니라 개조해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바람대로 된다면 아마 제일 좋은 공연장을 가진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부산시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근 부산시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저는 지금까지 부산문화회관의 운영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의회를 설득해야죠, 담당 공무원도 설득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언론도 설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산시향을 대신하여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수열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도 시 소속의 7개 단체에 묶여 있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부산시향이 단독적으로 교향악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운대 같은 우리 부산만 가지고 있는 너무 멋진 야외 공간들이 많습니다.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제대로 된 야외음악회를 하고 싶은데, 제가 부산시향에 오고 아직까지 못 해본 일입니다. 항상 공약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나봐요. 제 생각에 한국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절대 음악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향악단 역사 중에서도 정말 과도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휘자가 예술적인 부분 외 다른 부분도 신경 쓰지 않으면 교향악단이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더 나서서 책임지고 요구도 하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으니, 지역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선배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세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특히 예술은 더 등한시됐던 게 사실입니다. 참 가난하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산시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 사실 그 역사라는 것이 앞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가장 강한 곳이 부산시향이었어요.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부산시향이 1981년 5월 30일, 17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당시 부지휘자가 분명히 경선에 떨어졌는데, 몇 달 후에 그 부지휘자가 발령이 나버렸어요. 거기에 단원들이 발끈했죠. 단원들이 연주를 며칠 앞두



(왼쪽부터) 최수열, 이은옥, 이광식

고, 요새 말하면 농성이죠. 당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향악단 1세대 단원들이 하루아침에 시향을 떠나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기력한 단체였죠. 제일 후회스럽고 마음 아픈 게 바로 그때입니다.

윤상운 요즘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우영 제가 여러분 중에서는 가장 늦게 퇴임한 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시향을 나와서 교향악단을 바라보니 단원으로 있을 때와 많이 다르더군요. 좀 전에 최수열 지휘자님도 언급했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번이 시작이라 여기고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 후 힘을 합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때 해줄 거라 생각한다면 또 지금과는 별다른 변화 없이 똑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은옥 저도 부산시향에 몸담은 지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바깥에서 부산시향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급여나 연습실 등 선배님들이 예전에 했던 고민들이 해결되지 못한채 여전히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부산시향의 발전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식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60주년을 떠나 자주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저희 아래 세대를 보면 미래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한길만을 보고 걸어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등용문이 더 좁아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부산시향은 그나마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민간단체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근무사항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연습실 상황입니다. 지금 연습실은 지하의 반지하에 자리하고 있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배님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윤상운 오늘 이 자리가 부산시향 창단 6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배준익·홍보마케팅팀 대리

전쟁과 예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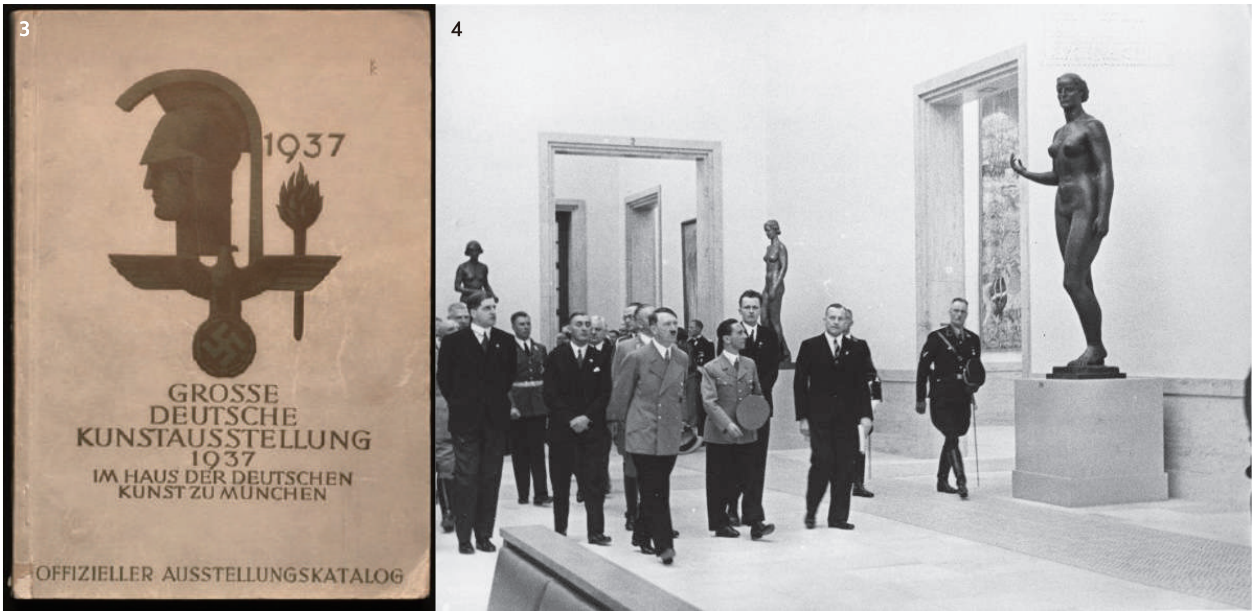
나치의 퇴폐미술전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시대를 앞섰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면, 나치가 정권을 잡은 독일에서도 많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위기를 맞았다. 특히 나치가 탄압했던 유대인들 중 부유한 이들이 갖고 있던 예술작품이나 나치가 점령한 지역의 작품들도 헐값에 넘어가거나 몰수되었다. 그러다 전쟁 패망의 징후가 보이자 수많은 예술작품을 진귀한 보물들과 함께 싣고 가던 기차가 폭발해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 소금광산이나 지하 벙커 등에 숨겨놓은 작품들이 전쟁 후 발견되기도 했다. 항간에는 나치가 숨겨놓은 금은보화와 예술작품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렇듯 나치가 강탈한 예술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영화 <우먼 인 골드>(2015)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이다. 이 영화는 초상화의 조카인 주인공이 전쟁 이후 숙모의 초상화가 나치가 소장한 예술품으로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되찾고자 노력한 이야기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1 아돌프 히틀러, <노이반슈타인 성>, 1914년, 수채, 53X40cm
2 <퇴폐미술전> 카탈로그, 14X21cm



3 <위대한 독일미술전> 카탈로그, 21X15cm 4 <위대한 독일미술전>을 관람하는 히틀러의 모습

가 오버랩이 되는데, 과거에 나치가 어떻게 예술품을 몰수했는지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예술품들이 전쟁 이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해보게 한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나치는 예술품을 모았을까. 그들의 식견이 너무나 탁월했던 것일까?

아마추어 화가였던 히틀러와 예술애호가가 많았던 나치지도층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간혹 실없는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 있다. '만약' 히틀러를 예술학교에서 받아줬다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거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히틀러가 그림에 대해서는 진지했다. 간혹 경매에도 등장하는 히틀러의 그림을 보면 시대에 다소 뒤쳐지지만 그래도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판 1] 히틀러는 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건물, 그리고 정물 등을 그렸다. 대상의 아름다운 형태를 잘 따르면서도 원근법적 구성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예술학교의 입학이나 전문적인 화가가 되기 힘들었다. 20세기 초반의 유럽에서 인상주의를 통해 이미 사실적인 화풍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는 피카소(Pablo Picasso)의 입체파, 마티스(Henri Mattisse)의 야수파, 그리고 추상회화까지 등장했다. 그 사이에서 고전적이고 아름답기만 한 히틀러의 그림은 솜씨 좋은 아마추어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대신 히틀러는 정권을 잡고 전쟁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림들을 맹목적으로 모았다. 또한 자신의 취향과 맞는 예술이야말로 나치에서 주장하는 우수한 혈통인 아리안(Aryan) 족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발견된 나치지도층들이 숨겨둔 작품 중에는 아방가르드 예술도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그림이나 책이 폐기되었지만, 헤르만 괴링(Hermann Göring) 등의 나치 수뇌부들은 몰래 예술작품을 빼돌려 자신만의 창고에 모았던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히틀러보다 취향에서는 시대를 앞섰던 것일 지도 모르겠다.

아방가르드 미술이 모인 <퇴폐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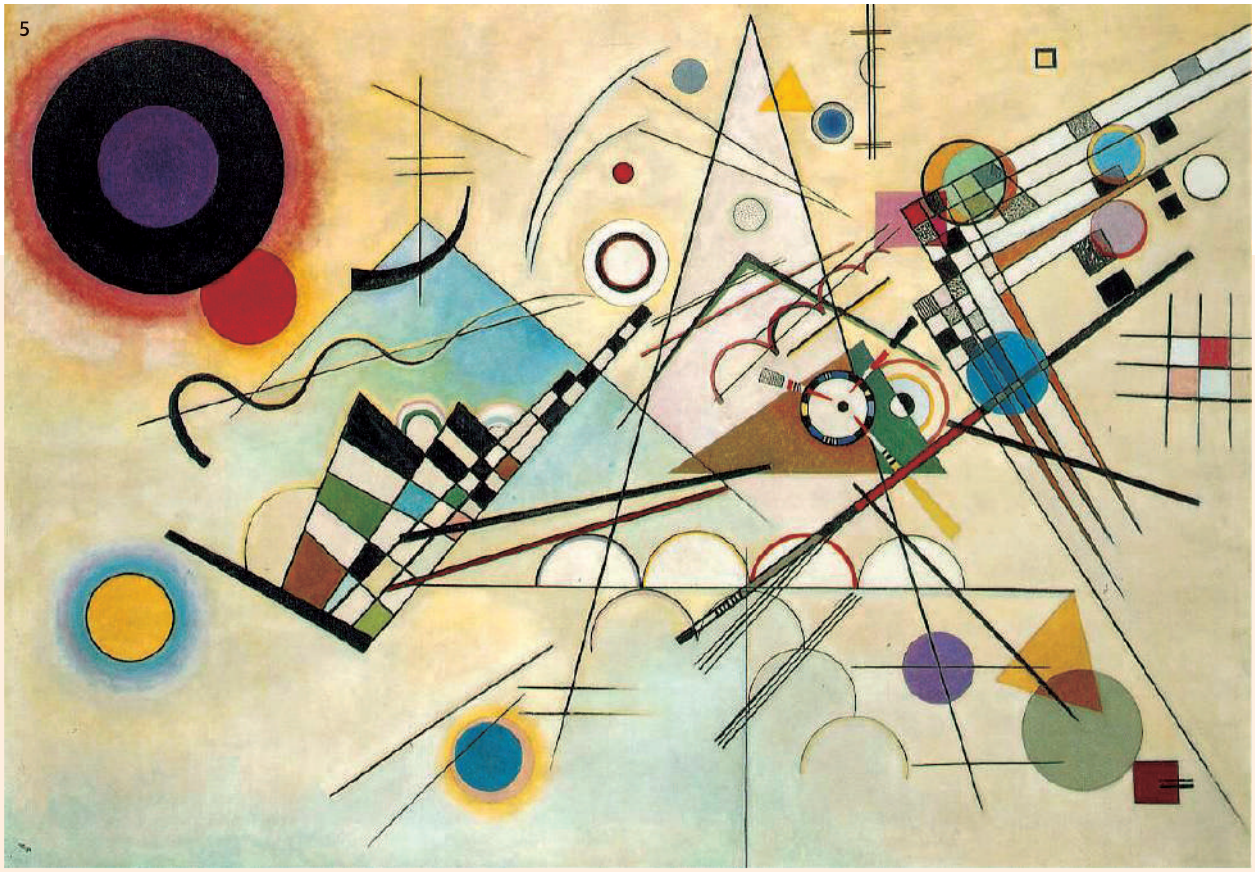
그나마 일부 나치 수뇌부들이 히틀러 몰래 작품을 숨겨두기는 했지만, 사실 당시 나치는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아리안족의 민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문화적 통제를 했다. 그 일환으로 1933년부터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의 지시하에 이들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치, 역사, 철학, 교육, 종교, 문학 그리도 정신분석학 등의 서적이 독일 전역에서 불태워졌다. 그리고 나치는 1937년 7월에 뮌헨에서 <퇴폐미술전(Entartete Kunst exhibition)>[도판 2]과 <위대한 독일미술전(the Great German Art Exhibition)>[도판 3]을 나란히 열었다.

<위대한 독일미술전>은 말 그대로 독일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나치가 생각한 미술들을 모아 놓은 것이었다. 카탈로그 표지에 표현된 고대 로마 군인의 모습처럼 인물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하여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회화뿐 아니라 조각 역시 역동적이고 거대한 기념비적인 모습이었다.[도판 4] 이에 반해 <퇴폐미술전>에는 입체파의 대표인 피카소부터 추상회화의 대표 화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아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클레(Paul Klee), 꿈과 같은 화면을 구현한 샤갈(Marc Chagall), 인간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한 뭉크(Edvard Munch),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독일 표현주의 작가 놀데(Emil Nolde) 등 작가 112명의 1만 7천 여점의 작품이 걸렸다.

이 작품들은 19세기 말부터 새로운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유럽 각지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진취적인 시도들의 결과들이었다. 스페인 출신화가 피카소는 3차원적 재현의 형태가 아닌 파편화된 형태로 회화의 평면성을 보여줬던 회화를 제시했다. 이를 더 해체하여 조형적인 선과 색, 기하적 형태만으로 추상회화를 구현한 칸딘스키[도판 5]는 비록 폴란드 출신이었지만 독일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독일의 표현주의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우리에게 <절규>로 잘 알려져있는 노르웨이 화가 뭉크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독일화가 놀데[도판 6]는 그간 회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퇴폐미술전>에 전시된 많은 예술들은 당시 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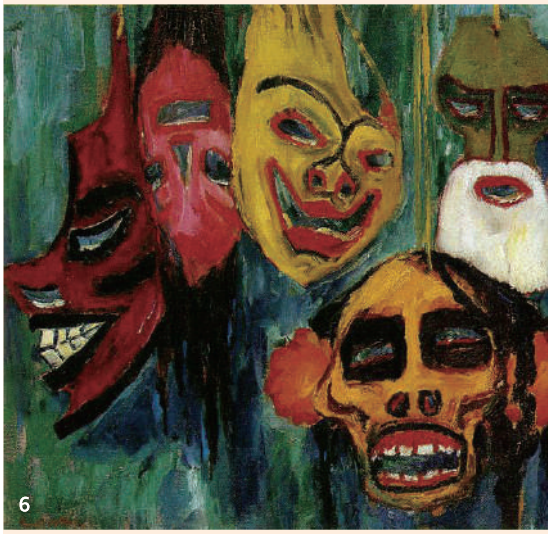
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예술들이었다. 이중에는 칸딘스키와 클레가 교사로 몸담고 있던 독일의 미술교육 기관인 '바우하우스(Bauhaus)'의 예술도 포함되었다. 건축, 공예 그리고 미술을 통합하고자 했던 바우하우스의 시대를 앞선 정신은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몇 년 후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칸딘스키와 클레 등 독일에서 활동했지만, 퇴폐미술로 낙인찍힌 화가들 역시 나치를 피해 다른 국가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술사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화가들의 작품이 나치에 의해 한자리에 걸려 있었던 거다. 이 어마어마한 예술을 모아두고 '퇴폐미술'이라 낙인을 찍으면서 아리안족의 정신을 흐리는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독일미술전>에 약 60만 명의 관람객이 든 것에 비해서, <퇴폐미술전>에는 그 세배도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그 앞에 연일 줄을 길게 섰다고 한다. 나치는 두 미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시대를 앞선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컸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위대한 독일미술가들보다는 그들이 퇴폐미술가라 칭한 이들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 탄압의 대명사가 되다

나치에 의해 기획된 <퇴폐미술전>은 비록 부정적이고 조롱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전시였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 대규모 기획전이자 블록버스터 전시였다. 당시 주제를 가진 기획전의 개념이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목적이 뚜렷이 드러난 초기의 기획전시로 기록되고 있다. 동시에 그 목적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지정한 미술을 탄압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탄압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예술이 신성불가침한 가치를 지닌다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예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바로크의 화가 루벤스(Peter Paul Rubens)는 외교관의 역할로 전쟁 종결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영국 왕실에 전달하기도 했고,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Jacque-Louis David)는 나폴레옹을 위한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이외에도 여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작가 스스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메시지를 담은 예술작업을 해왔다. 다만 나치의 행위처럼,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은 그림들을 특정 시각에 치우친 편협한 정치적 평가로 보고 가치절하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특정 인종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시각이었기에 재고의 여지도 없는 역사적 오명을 얻었다. 다만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통해 앞으로 또 다른 오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본다.



5 칸딘스키, <구성 VIII>, 1923,
캔버스에 유채, 140×201cm,
미국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소장

6 에밀 놀데, <가면들>, 1911,
캔버스에 유채, 73.03×77.47cm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와 페사로(Pesaro)의

로시니 오페라축제

ROSSINI OPERA FESTIVAL

글, 사진_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밀라노(Milano), 베로나(Verona), 파르마(Parma),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 등 이탈리아의 주요 오페라축제가 열리는 도시는 이탈리아 반도의 북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 여타의 주요 관광도시 역시 내륙이거나 대다수 지중해를 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동부, 아드리아해를 면하고 있는 작은 도시 페사로(Pesaro)를 걸음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이름조차 생소하다. 앙코나(Ancona), 리미니(Rimini) 등 페사로의 인접 도시들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세계사와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전면이 이탈리아 내에 둘러쌓인 내륙국 산마리노 공화국(Republic of San Marino)은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초미니 국가, 산마리노 공화국과 페사로는 지척에 있는데, 이번 호에 소개할 로시니 오페라축제(Rossini Opera Festival)가 열리는 도시이자 오페라 작곡가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 1792~1868)의 고향이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키노 안토니오

1

1 아드리아틱 아레나, 페사로 2-1·2-2 아드리아해의 작은 마을 페사로

로시니는 여러 분야에 작품을 남겼지만 역시 젊은 시절에 작곡한 오페라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기에 주로 오페라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로시니 이후 가에타노 도니체티, 빈센초 벨리니, 주세페 베르디, 자코모 푸치니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낭만파 오페라의 효시로, 빈센초 벨리니와 더불어 벨칸토 창법을 활용한 마지막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로시니의 오페라 가운데 '세비야의 이발사'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세비야의 이발사'를 비롯한 몇몇 오페라를 제외한 그의 많은 오페라들은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도 의외로 많이 공연되지 않았는데, 이는 낭만주의 시대 이후 카스트라토가 사라지고 벨칸토 창법도 명맥이 끊기면서 그가 추구했던 벨칸토 창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벨칸토 창법을 사용한 다른 바로크, 고전파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그의 오페라도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다시 공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재에도 그의 오페라를 공연할 때 주연급에 어울리는 가수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로시니가 작곡한 오페라 아리아들은 가수들에게 극한의 어려움을 선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한편으로 로시니는 젊은 시절에 큰 부를 축적한 부유한 음악가이자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로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39살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오페라 작곡을 중단한 이후 로시니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미식가(gourmand)이자 예술애호가로 유명해졌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는 '알라 로시니'라는 로시니 취향의 요리법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을 내건 요리대회가 개최되고 있을 정도이다.

로시니는 1792년 당시 교황령으로 있던 이탈리아의 페사로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금관악기 연주자이자 도축업 감시원이었으며, 어머니는 가수였다. 그의 부친 주세페 로시니는 페사로에 진입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1799년 오스트리아에 의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로시니와 모친 안나 로시니는 볼로냐로 이주하였으며 모친의 가수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듬해 감옥에서 풀려난 부친이 볼로냐에 합류하면서 로시니의 부모는 함께 음악활동을 했다. 이 시기 로시니는 몇몇 음악인으로부터 음악을 배울 수 있었다.

일찍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로시니는 볼로냐에 있던 카발리 후작(Marquis Cavalli)의 후원을 받아 18세였던 1810년, 그가 공식적으로 최초 작곡한 오페라 '결혼보증서

3 로시니 오페라축제 현장 4 로시니 오페라축제 포스터 5-1·5-2 로시니 극장

(La cambiale di matrimonio)'를 베네치아에서 초연하였다. 이 작품으로 이탈리아 오페라계에 소년 작곡가 로시니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로시니는 21세가 되는 1813년부터는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한 스토리를 가진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1813년 작곡되어 베네치아에서 상연된 비극 '탄크레디(Tancredi)'와 '알제리의 이탈리아인(L'italiana in Algeri)'으로 성공을 거두며 21살의 청년 작곡가 로시니의 이름은 이제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이른 나이의 대성공은 음악계 천재의 대명사인 모차르트 조차도 누려보지 못했다.

로시니의 오페라를 이야기하면서 '세비야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작품들은 예비작에 불과했다고 여길 정도로 엄청난 작품이 1816년 2월에 상연되었는데, 이 오페라가 바로 로시니의 최고 걸작이자 인기작인 '세비야의 이발사'이다. 이 작품은 원래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보마르셰(Pierre Beaumarchais)가 쓴 희극으로, 당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각색되어 오페라 무대에도 자주 올려졌다. 로시니가 활약할 당시에는 로시니보다 한 세대 앞선 오페라 작곡가 조반니 파이지엘로(Giovanni Paisiello, 1740-1816)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로시니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로시니의 오페라가 더 자주 공연되고 있다. 이처럼 '세비야의 이발사'로 겨우 24살의 나이에 대선배의 아성까지 넘어버린 로시니는 이후 8년간 20개의 오페라를 썼는데, 이 중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텔로(Otello, 1816)'를 통해 보여진 비극적이고 복잡한 스토리와 진지한 성격묘사는 이후 벨리니-베르디-푸치니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비극 오페라의 효시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시니가 태어난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운 마을 페사로에서 로시니 오페라축제가 시작된 것은 1980년부터이다. 음악 출판사인 리코르디(Ricordi)가 로시니의 작품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목적으로 페스티벌을 출범시켰다. 로시니는 생전에 약 40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그중에서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다섯 손가락에 들 뿐이다. 리코르디 출판사는 로시니 생전에는 일부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비평을 서슴치 않았지만, 훗날 로시니 오페라축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명 페사로 페스티벌로도 알려져 있는 로시니 오페라축제는 이탈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1993년 이탈리아 의회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을 통과하였다. 이로서 로시니 오페라축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 오페라계는 로시니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드는 이탈리아의 자세에 대하여 큰 존경을 보냈다. 로시니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가지자는 이야기는 로시니 생전에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생존한 작곡가를 마치 추모하듯 기념음악회를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68년 로시니가 파리에서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추모음악회가 열렸고, 로시니의 '슬픔의 성모(Stabat Mater)'가 연주되었다. 그 이후에도 로시니 추모음악회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다만 1892년 로시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도둑의 기회(L'Occasione fa il ladro)'를 초연했을 뿐이다.

1980년 로시니 오페라축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로시니 극장(Teatro Rossini)에서 주로 공연하였다. 로시니 극장은 1818년에 건설한 850석 규모의 극장으로, 이후 1988년부터는 새로 보수한 팔라스포트(Palasports) 경기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팔라스포트 경기장은 1,500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이다. 2000년부터는 실험극장인 스페리멘탈레 극장(Teatro Sperimentale)에서도 공연하였다.

로시니 오페라축제가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이 축제를 통하여 잊혀져 있던 로시니의 오페라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2014년 페사로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만난 작품은 로시니 극장에서 열린 '세비야의 이발사'였다. 하지만 2016년 두 번째 방문에서 만났던 로시니의 오페라 '호수의 여인(La donna del lago)'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여타의 오페라 무대에서는 손쉽게 만날 수 없는 로시니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고의 테너 중 한 사람인 페루 출신의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Juan Diego Florez)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음역을 내는 벨칸토 오페라 가수로도 잘 알려진 그가 세계 무대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이곳 페사로의 로시니 오페라 축제였다.

6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커튼콜

서동미로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길

서동예술 창작공간

박나무 자유기고가

금정구 서동의 미로시장은 한번 들어서면 끝도 없이 이어진다. 공식적인 입구만 아홉개인데, 시장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주택가로 이어진 출구들이 수도 없이 많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다보면 하루해도 금방 저물어 버릴 테니, 정신을 차리고 걸어야 한다. 길이 좁아 앞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따라 서야 할 정도인데, 문 닫은 곳 없이 이어지는 점포들의 모습을 보고 먹고 사노라면 이곳이 백화점(百貨店)이다. 1,500미터에 이르는 시장을 반투명한 지붕으로 덮어 비바람이 불거나 햇살이 기승이라도 쇼핑을 막지는 못한다. 옆동네 금사동에 공장이 번성할 때, 거주공간이 부족해 다닥다닥 붙은 집 위로 2~3층을 이어 올린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좁은 집에서 뭐라도 할라치면 골목에다가 내어놓고 작업을 해야 했고, 살림살이가 드러나며 넘치는 건 나누고, 부족한 건 사들이다가 자연스레 시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동미로시장도 점포 위로 눈길을 올려다보면 위층은 주로 가정집이나 창고들. 주상복합(住商複合)은 이 곳이 원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타워팰리스나 엘시티처럼 담이 높진 않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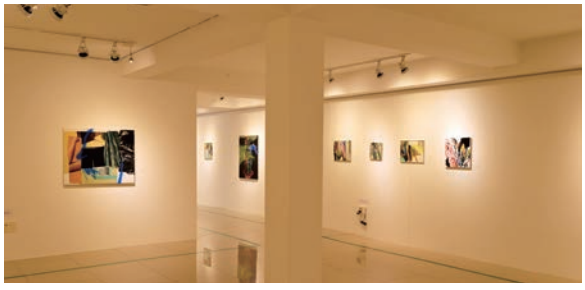
9월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시장 한켠에 마련된 한 평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때로는 아옹다옹하며 함께 웃고 울고 어울리던 시장바닥에 어느날부터인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고운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기도 했다. 10년 전 횟집이었던 서동우체국앞 상가에 자리 잡은 서동예술창작공간이 벌인 일이다. 예술은 삶과 괴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 또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민들 속에 쉽게 드나드는 일상과 같은 것이리라. 그래서 시장 한가운데에 문을 열고 시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연주회부터 시작했으나, 처음엔 야유와 함께 막걸리병이 날아들었다고. 시장에 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럴거면 트로트 한자락이나 불러보라~ 장사에 방해된다, 저리 가라! 갖가지 몽니를 부리던 사람들은 이제 서동예술창작공간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참여자가 되었다. 우리가 공간을 찾았던 9월의 어느날 오후도 10여 명의 상인과 주민들이 곧 무대에 올릴 <윤산도령과 미로낭자>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었다. 토박이 윤산도령과 이주민이자 상인인 미로낭자의 러브스토리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그려낸 수작인데, 같은 이름의 창작동화가 지난해 주민들의 참여로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 공연 역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하니, 놀라운 콜라보가 아닐 수 없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주민과 상인들, 그리고 미로시장 속에 긴 시간을 두고 스며들다가 슬며시 일체가 된 것 같다. 무시로 들어오는 카메라, 어느 시간이면 들려오는 연주, 오며 가며 둘러볼 다채로운 전시, 어떤 날 작은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 저녁시간 강당에서 이어지는 연습, 어느 요일이면 반갑게 만나는 동아리 모임… 이제 시장은 모든 것에 어색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그리움을 키웠다. 다시 창작공간이 활발해져야 하는 건 시장과 사람들의 갈증 때문이리라. 지역의 생활문화인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헬로우 서동>이라는 이름으로 창작공간입구 야외마당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간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엔 시장 안에 마련된 한 평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무대가 좁아 한 명 정도만 연주를 할 수 있는데, 대신 전업예술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가 높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의 1층은 갤러리로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동네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작가로 선정된 예술가들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의 내용이 적합하다면 무료대관의 기회도 열려 있다.

서동미로시장은 미로 같은 길로 얽히고설켜 미로이기도 하지만, 서동예술창작공간이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서동미로시장과 어울려 던지는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다.

운영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0~오후 6:00(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문의 서동예술창작공간 051-526-6262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2 시민뜨락축제'가 9월 30일부터 4차례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과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공연예술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번 하반기 시민뜨락축제에서는 부산시민회관을 벗어나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시민뜨락축제 첫 날인 9월 30일에는 전통연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창작연희 단체 '창작연희 The늠'이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옛 부산진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은 전시관, 커피박물관 외에도 기존 주차장 부지였던 잔디마당에서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창작연희 The늠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연희단체로, 그동안 전통예술을 꾸준히 학습, 계승하고 있다. '더늠'이란 판소리꾼들의 은어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자신의 색깔을 더하고 다듬어 새로이 부르는 대목'을 의미한다.

10월 7일과 14일은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7일에는 오장욱, 박준영의 매직큐가 선보이는 '자이언트 매직 서커스'가 펼쳐진다. 코믹하면서도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무대로, 밸런스 묘기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저글링 묘기가 어우러다. 14일에는 킬라몽키즈&루츠리딤의 국악 스트릿 무용극 'Future Crane'이 펼쳐진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예술인 '동래학춤'을 샘플링하여 창작한 '백학, 날아오르다'의 일부분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장단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월드뮤직 트랜스 아트 크루인 루츠리딤의 연주로, 스트릿 댄스팀 킬라몽키즈가 컨템포러리한 스트릿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시민뜨락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10월 21일 부산역 광장인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연주로 펼쳐진다.

일 시 9월 30일(금)-10월 21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및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세 번째 무대가 10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관현악 시즌'은 그동안 전통 국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한편, 우리 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 첫 선을 보인 무대로, 지난 3월과 5월,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조원행이 지휘하고 거문고주자 주윤정, 해금주자 강민정, 아쟁주자 홍영혜의 협연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지휘자 조원행은 그동안 K-Silk Road Honduras 예술감독,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사업 음악감독, 세종문화회관 청년예술단 AIP 음악감독, APEC 중남미 한국문화페스티벌 음악감독,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2011), KBS 국악대상(2012)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으로는 자연이 내는 소중한 소리를 관현악에 담은 조원행 곡 '청청'을 들려준다. 이어서는 거문고와 관현악의 선법과 연주기법 등의 표현적 차이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경은 곡 거문고 협주곡 'Contrast'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주윤정의 거문고 협연으로 들려준다. 1부 마지막 곡은 한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뜰 때 두 번째 보름달을 뜻하는 블루문을 모티브로 한 강상구 곡 '푸른 달'로, 푸른 달빛 아래 노래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강민정의 해금 협연으로 들려준다.

2부 첫 곡으로는 조원행 곡 아쟁협주곡 '아라성'으로,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듯 평온한 소아쟁의 음색과 강렬하게 폭풍우 치는 관현악이 대조를 이루며 변화무쌍한 바다, 더 나아가 자연의 신비를 노래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홍영혜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다의 소리와 색채를 담은 역동적인 인트로를 시작으로 애잔하고 진한 음색인 아쟁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국악관현악 시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황호준 곡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를 들려준다. 전래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주제선율로 작곡된 '바르도'는 동학 농민군의 천도(薦度)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선율로,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일 시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블랙스트링 콘서트

●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이 다시 부산을 찾는다.**

블랙스트링은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두고 재즈, 일렉트로닉, 락, 미니멀리즘, 아방가르드 음악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담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거문고 명인 허윤정을 주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색깔로 주목 받는 기타리스트 오정수, 전방위 대금 연주자 이아람, 그리고 역동성과 섬세함을 겸비한 타악 연주자이자 소리꾼인 황민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전통악기와 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보편적 감성으로 자유롭게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연주자의 즉흥성을 극대화하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팀명인 블랙스트링(Black String)은 '현금(玄琴)'이라 불리는 한국의 전통악기인 '거문고'를 지칭하는 말인 동시에, 동양에서 우주를 상징하는 검은색(black)과 한국 음악이 지닌 선(율)적인 면을 상징하는 스트링(string)이 합쳐져 우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한국 전통악기라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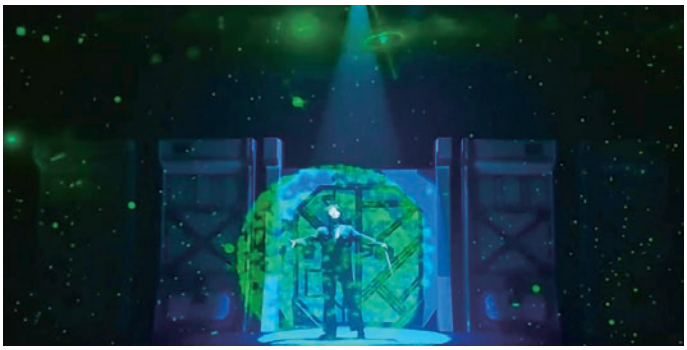
지난 2012년 런던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전 세계 유수의 공연장 및 페스티벌 초청 투어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려온 블랙스트링은 특히 2016년에는 월드뮤직엑스포(WOMEX) 공식 쇼케이스에 초청받았으며, 2018년에는 영국의 저명한 음악전문지 송라인즈(Songlines) 뮤직어워즈에서 한국 음악가 최초로 아시아&퍼시픽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최우수 연주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제17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하며 그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블랙스트링은 아시아 그룹 최초로 유럽 최대 규모의 재즈 레이블인 ACT Music에서 1집 음반 'Mask Dance'(2016)와 2집 음반 'Karma'(2019), 그리고 라이브앨범 'Jazz at Berlin Philharmonic'(2020년)을 발매하며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사운드를 탐구해온 블랙스트링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음반 수록곡을 비롯해 그들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특히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 첫 콘서트를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해야 했던 아쉬움을 이번 공연을 통해 해소할수 있다.

일 시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갤럭시 일루전 쇼



●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일루전, 그리고 마술과 서사가 만나 눈 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우주로의 여행, 다원예술공연 '갤럭시 일루전 쇼'가 10월 2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갤럭시 일루전 쇼'는 지난 2020년 우주를 주제로 한 홀로그램 퍼포먼스 쇼로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초연된 후 매년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산 무대에 서게됐다.

2092년 우주여행이 일상인 시대, 우주 저 멀리 '보이드' 지역에서 고대의 천체가 순간적으로 관측됐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견되며 과학계가 들썩인다. '신기함'을 서비스와 상품으로 판매하던 기업 엘코퍼레이션에서는 그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첨단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주선 '엣지호'를 개발하고 탐사관광을 떠날 관광객을 모집한다. 그렇게 모집된 관광객들과 함장 신길우, 승무원 미숙과 태리, 그리고 탐사관광을 안내할 가이드까지 모두 엣지호에 승선한 후 우주로 떠나게 되는데…. 과연 차원의 상처라 불리는 '보이드' 지역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

이번 무대는 공연장이라는 환경을 새롭게 뒤바꿔버린 일루전 퍼포먼스 그룹인 '엘 일루전(L' Illusion)'만의 홀로그램과 일루전, 그리고 서사가 만드는 융복합 공연으로,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와 마술이 주는 신비함이 만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가 아닌 장면으로 전달한다. 특히 유사 홀로그램과 마술을 통해 상상 속에서만 그려졌던 '환상(Fantasy)'들이 살아나며, 극장이 우주선으로, 관객은 탑승객으로, 배우들은 승무원으로 변해 마치 실제 우주선을 타고 나온 듯한 깊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을 제작한 일루전 퍼포먼스 그룹 '엘 일루전'은 지난 2015년 '프레스티지쇼'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부산에서 거점을 두고 마술을 활용한 공연과 퍼포먼스로 '환상을 더하다'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일 시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 **격정의 탱고에서부터 영혼을 사로잡는 재즈, 여기에 클래식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누에보 탱고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가 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 역사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장식한 '아스토르 피아졸라', 재즈의 역사를 열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루이 암스트롱' 등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대중들에게 인식시킨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을 따라가며 그들이 음악 역사에 새겨놓은 의미를 되새겨보고 추억할 수 있다.

1부에서는 춤곡으로 시작된 고전 탱고에서부터 재즈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루이 암스트롱의 삶과 음악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탱고와 재즈는 유럽에서 건너간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집결되어 탄생한 장르로, 즐기기 위한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고전 탱고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Vida Mia', 'El Choclo', 그리고 'El Choclo'를 번안한 'Kiss of Fire'를 발표하여 탱고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던 루이 암스트롱의 대표곡 'Summer Time', 'La vie en Rose' 등 탱고와 재즈의 이색적인 만남을 즐길 수 있다.

2부에서는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전통적인 탱고에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요소를 혼합한 누에보 탱고는 '춤을 추기 위한 탱고'가 아닌 '듣기 위한 탱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탱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Chin Chin', 'Chiquilin de Bachin', 그리고 피아졸라 특유의 추억에 젖게 하는 'Oblivion' 등 피아졸라가 작곡한 누에보 탱고 음악으로 꾸며진다.

특히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탱고부터 재즈까지 한계없는 장르의 연주를 선사하며, 따뜻한 감성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클래식 공연 사회자로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정환호가 해설을 맡아 공연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상지와 더불어 작곡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최문석, '불후의 명곡' '스페이스 공감' '아름다운 콘서트' 등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폭 넓은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김유성, 녹음·공연·방송 세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페터 박준규가 함께 출연, 열정적이면서 진한 풍미까지 느껴지는 레드와인과도 같은 공연을 선사한다.

일 시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후설

● 2021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에 빛나는 연극 '후설'이 부산을 찾는다.

연극 '후설'은 궁중의 말을 옮겨 적어 보좌하는 역사의 기록자들인 후설(喉舌)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극으로, 조선시대 승정원을 배경으로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치권력 간의 세력 다툼과 음모를 현대적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제8회 대전희곡창작공모 대상작으로, 당시 희곡의 안정적인 구성과 더불어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동시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조선 정조 21년인 1797년 초여름, 왕의 말을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승정원 소속 안 주서(注書)가 뒤주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다. 현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임을 생각한다면 왕권에 대한 도발이 분명한 상황이건만, 이 사건을 수사하려는 좌부승지 정약용을 노론 출신의 동부승지인 이직보가 저지한다. 이에 정약용은 같은 승정원 주서인 권현, 동부승지 홍은우와 함께 비밀 수사를 펼치게 되고 이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염원과는 달리 정치적 세력의 음모가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후설'은 사극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고루한 전통 역사극이나 요즘 유행하는 황당한 퓨전 판타지 사극과 달리 현대적인 화법과 캐릭터를 구축함으로써 탄탄한 구성과 함께 동시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후설이라 칭하는 이들을 현대 정치인들의 인물들로 대입시켜 현대사회의 정치를 풍자하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작품을 제작한 극단 늘품은 역사극에 대한 지루함을 깰 수 있는 빠른 템포의 연기 패턴과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지난해 충북연극협회 대표로 참가한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극단 늘품 대표로 있는 천은영이 연출을 맡았으며, 극 중 '조생' 역할을 맛깔스럽게 연기하여 신인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정아름를 비롯해 최대운, 이병철, 정희선, 신현주, 안정훈, 윤수지 등 극단 늘품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다.

일 시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회란기

●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신작 '회란기'가 부산을 찾는다.**

'회란기'는 연극 '조씨고아', '낙타상자'에 이은 고선웅 연출의 세 번째 중국 고전작품으로, 중국 원나라 때인 1200년대 중반, 극작가로 명성을 구가하던 이잠부가 쓴 잡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솔로몬의 판결'과 유사한 이야기로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대표작인 '코카서스의 백묵원'의 원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 사회상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생생하게 표현하여 연극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란기'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네 갑부 마원외의 첩이 돼 아들을 낳는 장해당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본처 마부인은 불륜남과 작당해 남편을 독살하고 장해당에게 뒤집어씌운다. 더구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장해당의 아들을 자기 아이라 주장하고, 산파와 이웃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다. 장해당의 무죄 호소에 판관 포청천은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 아이를 세우고, 장해당과 마부인이 아이를 각자 방향으로 끌어당기게 한다.

연극 '회란기'는 700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이 시대와 은유적으로 닿아있다. 소유욕,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거짓된 증거들, 모성애 등 고선웅 연출은 이런 예측 가능한 이야기의 서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탁월한 변주를 통해 동시대인의 욕구까지 충족시킨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연출가 고선웅은 긴장감 있는 극 전개를 택하는 대신 연희성을 살린 연출과 질펀한 입담으로 지루하지 않게 극을 끌어간다.

최근 서울시극단장에 선임된 연출가 고선웅은 연극, 뮤지컬, 창극, 오페라 등 장르를 불문하고 각색의 귀재로 불리며,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 중에서도 그의 첫 번째 중국 고전 작품인 '조씨고아-복수의 씨앗'은 2015년 초연 이후 동아연극상 대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등 국내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거듭되는 재연에서도 티켓 오픈 하루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국립극단의 대표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또다른 중국 고전인 '낙타상자'는 2019년 서울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 공식초청받았으며, 초연부터 연이은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극예술학회 연극 부문 올해의 작품상, 공연베스트7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연출가 고선웅이 극공작소 마방진 단원들과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라는 점도 연극애호가들의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일 시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중학생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풍성한 가을걷이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10월, 부산시민들을 찾아간다.
부산지역 공연예술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무대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를 비롯하여
부산 유일의 종합 예술축제 '부산예술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10월 한달간 펼쳐지면서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10월에 만나는 풍성한 문화행사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부산 대표 예술축제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지역 공연예술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무대,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가 10월 2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처음 기획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부산지역 예술인과 발을 맞춰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무대로, 명실상부 부산의 대표 예술축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 앞서 지난 7월, 부산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진행, 총 44개 지원자(단체) 중 4개 팀이 최종 선정되어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해왔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신진예술인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중견예술인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역 예술계의 세대 간 화합을 꾀하고자 했다. 이번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에서는 부산의 연극, 한국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를 비롯해 탈장르적이고 비언어적인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예술집단C, 부산, 경남·영남지역에서 최초로 창단된 일파가야금합주단, 그리고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는 현대무용 작업을 펼쳐온 경희댄스시어터 등 장르를 망라한 4개 팀이 참가하여 연극, 다원예술, 국악, 현대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작·연출 최은영
출연 박찬영, 이은주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땡큐, 돈키호테>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젊은 연극배우와 죽고 싶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인의 좌충우돌 연극 '땡큐, 돈키호테'. 지난 2020년 '나는 연출이다'에서 20분짜리 단막극으로 초연된 이후 2021년 작강연극제에서 완결작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당시 한형석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매년 10월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인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 참가한다. 지난 1997년, 홍성모 감독을 필두로 창단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은 그동안 근원적 인간성 탐구와 본질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과 자연, 자아와 우주, 내면과 외면의 교차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무대 위 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연출 황지선
출연 전성호, 이혜수, 천권준, 이혜영
김여진, 한상훈, 이인우, 이보미

예술집단C **<토끼h의 시간>**

11월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양성이 무시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토끼들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토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각자의 시간을 찾아 가는 따뜻한 여정을 그린 신체극 '토끼h의 시간'. 이 작품은 지난 2016년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그 해 11월,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공연된 바 있다. 예술집단C는 지난 2014년 창단 후 연극, 무용, 전통연희, 미술, 영상, 음악 등 다장르 아티스트들 간의 수평적인 협업 작업을 통해 '연극과 신체, 이미지와 신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프로젝트형 융복합 공연을 기획·창작해오고 있다.

사회 장명화

일파가야금합주단 **<현의 노래>**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의 무대 '현의 노래'. 첫 곡으로는 아시아 음악의 밤 '현의 노래'(이은경 곡)로, 아시아의 민족악기(중국의 고쟁, 양금과 대만 얼후, 몽골 부레, 우즈베키스탄 도이라, 루 밥)와 우리나라의 25현 가야금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무대이다. 이어지는 곡 '세계로 가는 아기상어'(곽재영 곡)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아기상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야금과 양금을 위한 25현 합주곡 '그리움'은 '부산 앞바다'를 주제로 오래된 명인들과의 추억과 그리움을 현대적인 리듬의 다양한 변주로 시도한 작품이다. 지난 1996년에 창단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가야금 연주 및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연출, 안무 박재현

경희댄스시어터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3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립무용단체인 경희댄스시어터의 창작무대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회동수원지 댐 건설공사(1940-1942)로 논밭과 집이 수몰되어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담은 창작무대이다. 지난 2016년에 창단한 경희댄스시어터는 안무자 박재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단체만의 색깔과 개성 있는 움직임으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0회 부산예술제가 10월 1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시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작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이다. 2022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13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인 '2030에 유치해'에서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을 담아 '새로운 세상, 미래를 여는 세상 in 부산'을 주제로 합창, 스트릿댄스, 국악, 무용, 성악 등 다채로운 예술로 시민과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열린축제를 선보인다. 10월 14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음악협회의 '2022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는 지휘자 박성환이 지휘하는 부산음악협회 청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어서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전통음악한마당 'GOOD 보러가자'는 10월 16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음악 예술 중 하나인 굿 음악을 통해 우리 민족의 평안을 염원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다채로운 지역의 굿 음악을 들려준다. 10월 23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부산무용협회의 '恚, 마음을 담다'에서는 2021년 새물결춤 작가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아트프로젝트 욜로 '함께'를 비롯해 춤패바람 '출항', 장인숙의 '지전춤(김진홍류)', 이미경의 '산조와 나', 박헌주부산시티발레단 '선택', 이민아무용단 '살풀이춤(이매방류)'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연극협회가 마련하는 '秀秀한 연극초청전'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뮤지컬 '노인 새 되어 날다'(날짜, 시간 미정)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영화인협회에서는 10월 22일 오후 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연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함께 어울러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부산영화인협회가 제작한 4편의 단편영화를 베리어프리(barrier-free, 화면해설)로 상영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마당에서는 부산차문화진흥원이 준비한 '세계음다풍속' 행사가 마련되며,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2022 제23회 부산실버가요제'는 10월 23일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제 기간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는 '2022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이,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1년간 카메라에 담은 '2022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 국내 작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부산미술대작전'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열리며, 이 밖에 꽃향기 가득한 꽃예술 설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꽃예술전'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부산과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교류전과 시 낭송, 초청강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제9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한편, 본격적인 예술제 행사에 앞서 10월 12일 오후 5:00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는 부산예술대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린다. 제21회 부산예술대상에는 허휘(미술), 손병태(연극), 안지환(음악), 제15회 부산젊은예술가상에는 손몽주(미술), 정은주(무용)이 선정됐다.

종합예술의 대향연

2022년 제60회 부산예술제

10월 12일(수)-23일(일)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청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조직위원장 도용복)가 10월 19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축제가 올해 다시 대면으로 열리게 되면서 6개국 30여 개 합창단, 1,000여 명이 함께 모여 노래한다.

부산국제합창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그동안 17차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부산국제합창제는 개막 첫날인 10월 19일에는 개막공연과 함께 합창 워크샵이 펼쳐지며 이튿날인 20일부터 사흘간은 청소년, 클래식 혼성&동성, 민속, 팝&아카펠라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의 초청팀으로는 세계 최고의 앙상블 '더 스윙글스(The Swingles, 영국)'와 미국의 바버샵 4중창단 '애프터 아워스(After Hours)', 그리고 2021년 부산국제합창제에서 3관왕을 차지한 인도네시아의 '텔콤 대학합창단(Telkom University Choir)'이 부산을 찾아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부산국제합창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오후 5시부터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경연대회의 마지막 순서이자 부산국제합창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상식이 펼쳐진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부산국제합창제 4개 경연부문 수상팀들이 대회 그랑프리를 두고 벌이는 가장 중요한 경연대회 속의 경연대회로, 그랑프리 파이널이 끝난 후에는 2022 부산국제합창제 창작합창공모 시상식도 함께 펼쳐진다. 올해 창작합창공모에서는 전 세계 22개국, 45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필리핀의 Ily Matthew Maniano가 작곡한 'Amihan'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으며, 시상식 이후에는 제8회 부산국제합창제 대상팀인 '이무지카펠라(지휘/Tristan Ignacio, 필리핀)'의 연주로 들려준다.

2022 Busan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제18회 부산국제합창제

10월 19일(수)-22일(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개막공연 더 스윙글스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8: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R석 5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지난 57년간 클래식에서 팝, 록, 재즈, 전 세계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아우르며 경이로운 보이스의 예술을 전파해 온 더 스윙글즈가 개막무대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지난 1963년, 바흐의 건반악기 음악을 아카펠라로 녹음한 첫 음반 '재즈 제바스티안 바흐'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 일약 세계적인 그룹으로 떠오른 더 스윙글즈는 5번의 그래미 수상, 70여 장의 앨범, 5,000여 회의 세계순회공연으로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갈라콘서트 I 바버샵 쿼텟 애프터 아워스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R석 2만원 · S석 1만원

'바버샵'은 '이발소'라는 본래의 뜻 외에 '무반주 남성 4중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바버샵 하모니 소사이어티 2018 인터내셔널 쿼텟 챔피언인 애프터 아워스는 그동안 바버샵과 넌바버샵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갈라콘서트 II 텔콤 대학 합창단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전석 1만원

2014년에 창단된 텔콤 대학 합창단은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리는 World Choral Champion-ship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참가, Taipei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으로 열린 제17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반주와 무반주부문 금상, 그리고 영상편집상까지 거머쥐며 3관왕을 달성했다.

작품의 한계를 상쇄한 청년 예술가의 힘

수퍼 타이거-
춤과 음악의 히어로

이상헌 춤 비평가

지난해, 지역 젊은 춤꾼이 참여한 <MOTI>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 무용계에 기여하는 의미로 기획·제작한 작품이었다. 당시 부산 예술계와 관객 반응은 뜨거웠지만, '이것으로 끝일까?'라는 걱정과 기대가 남았다. 한 해가 지나고, <수퍼 타이거 Super Tiger>가 탄생했다. '신진 청년 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 개발'을 목표로 8월 26일, 27일 이틀간 선보인 공연은 가려 뽑은 영남 지역 청년 무용수 17명과 국악 연주자 33명이 출연했다. 기획 자체가 부산 예술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일은 청년 예술인들의 면면과 열정을 확인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잘 짜인 작품 속에서 그들의 참모습이 더 잘 드러날 것은 분명하다.

<수퍼 타이거>는 청년 예술가가 어려운 현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는 내용을 신화적 우화에 빗대었다. 대부분의 영웅서사는 남다른 면 때문에 변종으로 불리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변종은 무리와 쉽게 섞이지 못하지만, 운명적인 계기를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존재로 거듭난다. 작품은 이런 서사 구도를 그대로 따른다. 이 작품에서 영웅은 변종 호랑이로 나중에 수퍼 타이거로 거듭나는 우리 시대 청년 예술가이다.

무대는 크고 풍성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동굴이다. 줄기와 가지까지 흰색인 나무는 생명의 기운이 서려 있다. 이 나무로 인해 동굴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공간이 되고, 강렬한 군무가 원초적 생명감을 뿜는다. 니진스키가 안무한 <봄의 제전>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군무가 끝나면 골프장에서 호랑이들이 금수저 호랑이의 비위를 맞추는 장면이 이어진다. 밤이 되어서야 골프장은 그들의 세상으로 변한다. 그러던 중 낯선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한다. 무리와는 다른

변종 호랑이다. 변종의 행동은 거리낌 없다. 무리와 변종이 대립하는 춤과 변종의 행동에 무리가 서서히 동화하고 각성하는 장면이 이어진 후 다시 골프장에서 그들은 금수저에 반기를 들어 상황을 역전시킨다.

이야기 구조는 복잡하지 않은데, 초반부, 후반부와 에필로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감정의 반복으로 이야기 진행이 늘어졌고, 이야기를 함께 끌고 가던 춤과 음악의 균형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태평소 연주자가 무대로 나와 연주하는 장면의 감성은 작품 전반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보였다. 춤과 음악이 서로 주고받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받쳐주는 식의 변화와 통일감이 흐려지면서 이야기 맥락이 흩어졌다.

공간은 또 하나의 제약이었다. 이정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독특한 공간 활용에 있다. 과감하고 유동적인 공간을 춤으로 조이고 푸는 맛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공간은 동굴로 한정되었고, 이정윤 감독의 특기가 발휘될 조건이 사라졌다. 구성이 치밀하면 관객은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한다. 음악과 춤의 균형이 무너지고, 감정의 반복으로 변화의 활기가 약화하면서 구성이 느슨해진 탓에 관객이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게 됐고, 한정된 공간의 답답함이 부각되었다. 조명을 활용했지만, 평면적 변화일 뿐 공간이 주는 극적 효과와 역동성을 표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청년 예술가들이 작품의 틈을 절절한 감성으로 채워가면서 스스로 돋보여 작품 자체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예술가의 현실이다. 기성세대가 깔아 놓은 판의 문제와 모순을 딛고 자신들의 판을 만들어 내는 것 말이다.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Giorgio Agamben)은 배제 속에 작동하는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 신성한 생명)에 관해 말한다.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존재이다. 그는 이미 신의 소유이므로 희생양(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인간 공동체의 법/권리의 보호 바깥에 위치하기에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

의 영역에서도 배제된다. 혹은 이렇게 배제되는 조건으로만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계약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호모 사케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 예술가도 그중 하나다. 공동체의 시스템은 유독 그들 앞에서 효력을 멈춘다.

그런데도 청년 예술가를 추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웅은 시대의 호명으로 나타난다. 영웅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동체가 만들어 내는 희망이라는 뜻이다. <수퍼 타이거>의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이 선의와 열정을 쏟은 이유도 청년 예술가를 우리 시대의 희망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기획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이어져야 한다. 이마저 없다면 청년 예술가의 현실은 더 막막해질 것이고,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구원은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신의 옆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일 같은 것이다. <수퍼 타이거>를 함께 보는 것도 그렇다. 작품 자체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그들 뒤에서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영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애써 맞이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짜임새는 없다. 만약 그런 판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역할이 고정된 수동성이 극대화된 판이다. 이런 면에서 <수퍼 타이거>는 불완전하지만, 출연자가 작품의 단점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전화위복의 장이었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일 시 | 7월 9일(토)-10월 3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행복의 화가(A painter of bonheur)'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첫 부산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티스 회고전으로,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그가 남긴 방대한 원화 작품을 통해 '야수파'로 알려진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를 현지 올로케이션으로 촬영하여 담아낸 영상과 뮤지션 정재형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티스의 예술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직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

일 시 | 9월 15일(목)-10월 9일(일) 평일 오전 11:00 (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환경지킴이 에코와 그린, 박스맥과 함께 떠나는 환경 여행 '에코백'.
이번 무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깨끗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공연과 전시가 결합된 무대이다.
특히 편리함의 대명사 스마트폰, 택배 등에서 시작하여 해양오염, 기후변화, 탄소 중립까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지를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2022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라 보엠

일 시 | 10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2 부산오페라시즌' 무대로, 푸치니의 낭만주의 오페라 '라 보엠'을 선보인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로 발탁되어 데뷔한 테너 정호윤,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으로부터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리릭테너'라는 호평을 받은 테너 권재희, 2014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황수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로부터 호평받은 소프라노 박하나 등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함께 한다.
• 지휘/백진현 • 연출/엄숙정

소프라노 김소연 독창회

일 시 | 10월 2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더뉴앙상블 010-3569-0607

깊이있는 표현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소연 독창회.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국립음악원 'Giuseppe Verdi' 석사과정과 밀라노 시립음악원 'Claudio Abbado'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며 전문 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김소연은 그동안 이탈리아 보르디게라 여름페스티벌 콘서트, 이탈리아 파르마 콘서트를 비롯해 오페라 '리골레토', '라보엠', '토스카' 등 다수 무대에서 음악적 기량을 발휘해왔다.
지난 2017년 귀국독창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김소연은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 피아노/방은현

한국가곡 100주년 기념
CBS 콘서트 세상을 품은 우리 노래

일 시 |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CBS 636-0050, bscbs.co.kr

올해 한국가곡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CBS교향악단이 마련하는 특별 연주회 '세상을 품은 우리 노래'.
지나온 100년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전망해보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상임지휘자 정두환의 지휘 및 해설과 함께 1920년대 한국가곡의 시발점인 '동무생각'부터 '고향(1933)', '고풍의상(1948)', '그리운 금강산(1961)', '청산에 살리라(1980)', '마중(2014)' 등 시기별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 왕기헌,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양승엽, 바리톤 우주호, 베이스 김정대가 출연, 한국가곡의 멋과 매력을 전한다.

제63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5일-6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815-3190, 010-3596-1964

지난 1990년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 단체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써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그동안 신인연주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날인 5일에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성민주의 듀오무대가, 6일에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들의 듀오연주가 펼쳐진다.

소호 오페라 코리아 기획 연주 시리즈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선착순 입장)
문 의 | 소호 오페라 코리아 010-4809-8588
SohoOperaKorea@gmail.com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깊이 있는 첼로 선율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드레스덴 등지에서 활약하던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엄격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대한민국 최고의 영 아티스트들이 함께 꾸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그들의 아리아만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 총감독 및 연출/김홍경
- 첼로/강지성
- 소프라노/김홍경, 곽연희
- 영아티스트/김예원, 강다현, 장예진
- 피아노/김은덕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일 시 | 10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구현진 010-2676-7884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짙은 소리로 무대에서 특유의 깊은 감성을 보여주는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이, 베르디 국립음악원, G. B. Viotti (Vercelli-Italia) 아카데미 오페라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구현진은 유학 시절, Giovani Talenti 콩쿠르 3위, Città di Racconigi 국제콩쿠르 3위, Italien Festival 국제콩쿠르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귀국 후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구현진은 현재 한국성악(학)회와 국제성악협회, 팝페라 그룹 더 로즈 유니크의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고은지
- 바이올린/전혜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라벨의 관현악곡 열두 작품 전곡을 완주하는 장기 프로젝트 마지막 무대.
평소 라벨을 존경했던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라벨 음악의 정교함, 꼼꼼함을 빗대어 스위스 계였던 그의 아버지 혈통과 관련지어 라벨을 '스위스 시계장인'에 비유했다.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협주곡과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 '볼레로' 등 두 개의 관현악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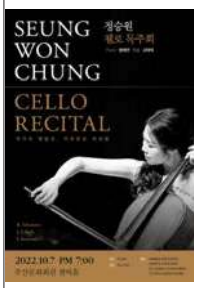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조원행이 지휘하고 거문고주자 주윤정, 해금주자 강민정, 아쟁주자 홍영혜의 협연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조원행/국악관현악 '청청'
이경은/거문고 협주곡 'Contrast'
강상구/해금 협주곡 '푸른 달'
조원행/아쟁 협주곡 '아라성'
황호준/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

정승원 첼로 독주회
각자의 재발견, 자유로운 뒤섞임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위드첼로 010-3488-265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Seoul Virtuosi, arte 단원,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정승원 독주회.
그동안 솔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실내악 무대,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정승원은 앞으로도 학구적인 자세로 현대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양하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아노/정혜연

제25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북·동유럽의 현을 위한 Su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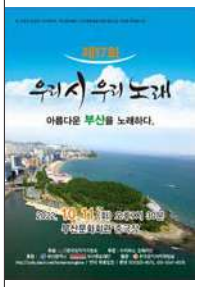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솔기획 010-4909-7444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음악적 색채를 표현하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로 클래식 공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덴마크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카를 닐센, 스웨덴 작곡가 Dag Wirén, 20세기 체코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현대음악 작곡가 레오슈 야나체크,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인 그리그 등 북·동유럽 작곡가의 곡으로 꾸며진다.

- 총예술감독/임병원

제17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회장 김성덕)가 들려주는 제17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틋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어린이 독창, 어린이 합창, 테너 독창, 소프라노 독창, 여성 합창, 남성 합창, 혼성 합창 등 다양한 편성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매년 공연과 함께 열리는 제6회 한국창작가곡대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수상자인 이옥영(작곡), 박윤정(연주)이 수상한다.

제24회 남구문화원음악회 정기연주회
이 가을에 듣고 싶은 음악

일 시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남구음악회 010-9287-6350

남구음악회 회장으로 있는 테너 강학윤을 비롯하여 부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이 출연,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친숙한 곡을 들려주는 '이 가을에 듣고 싶은 음악'.

프로그램

첫사랑(김효근), 오페레타 '쥬디타' 중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레하르), 슬픔(쇼팽), 가을 들녘에서(이안삼), 무정한 마음(카르딜로), 그리워(채동선), 시월의 멋진 날에(뢰브란), 영화 '대부' 주제곡 메들리 등 수곡

- 소프라노/박미경, 김정은, 김현주
- 테너/강학윤, 조동훈
- 바리톤/하병욱, 박찬
- 바이올린/박경희 • 첼로/전명희
- 피아노/윤민화, 정아름

독우회 제54회 정기연주회
Liebe und Gedanken

일 시 |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독우회 010-8515-2525, 010-4800-6224

독일에서 유학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54번째 정기연주회.
독우회는 지난 1994년 결성된 후 그동안 많은 음악가들을 연구하며 다양하고 깊이있는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Liebe und Gedanken'라는 테마로,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6개의 피아노 소곡 작품 118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제2번 작품 120
슈만/다비드동맹무곡 작품 6 등

- 피아노/김유진, 김문주, 이요한, 김미희, 이효연, 선지수, 김경진, 서영진, 김은주
- 클라리넷/이환석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래의 부산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차세대 연주자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협연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우수성과 정통성을 이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주자들을 배출해왔다.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협연자 5명의 학구적이면서도 절제된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휘자 이동신은 창원마산시립교향악단 및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그동안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및 교향악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특히 제1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는 오페라대상 특별상, (사)한국음악협회 2015 한국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델리오' 서곡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12번 제1악장
랄로/첼로 협주곡 제1악장
베버/바순 협주곡 제1악장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제3악장
슈포어/클라리넷 협주곡 제4번 제1악장

- 지휘/이동신(국립창원대학교 교수)
- 피아노/진예현(부산예중 1학년)
- 첼로/정서진(해원초등 4학년)
- 바순/김예닮(부산대 2학년)
- 바이올린/강태겸(홈스쿨링)
- 클라리넷/서수민(부산대 4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Ensemble

일 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피아노4중주에서부터 현악5중주, 피아노5중주, 타악합주, 8중주 등 다양한 악기와 편성으로 앙상블 무대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슈만/피아노4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7
도라 페야체비치/피아노4중주 라단조 작품 25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가장조 D. 667 '송어' 등

- 지휘, 지도/이명근(수석지휘자)
- 연주/김가원, 김예빈, 김유경, 박양지, 서가영, 성아랑, 성형원, 송예빈, 윤서영, 윤지영, 이경민, 이소정, 이현지, 장선아, 전민욱, 전성해, 정진욱, 정하람, 차희주, 천재현, 최준서, 하승연, 한운지, 한윤승

소프라노 김소율 독창회

일 시 |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Tradizionale, Biennio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클래식타임즈상(2014년), 음악저널상(2017년), 헤럴드 경제상(2019년),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에서 Espoir prize 수상한 소프라노 김소율 독창회.
지난 201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창작오페라 '선비'의 주역을 맡아 많은 박수를 받은 김소율은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해 해외 초청연주회,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관객들과 만나왔다.

- 피아노/최영민
- 특별출연/바리톤 문정현
- 바이올린/강수정, 채지원
- 플루트/이효권 • 첼로/변은석

부산시립무용단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本色

일 시 | 10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만의 춤 브랜드화 시리즈로, 2022년 새롭게 선보이는 '춤, 본색本色'.
'춤, 본색本色'은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해, 새로운 한국춤 레퍼토리 개발을 통한 '부산의 춤'의 명품화를 위한 시리즈 공연으로 첫 선을 보여 관객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자연의 색과 의미를 담은 춤과 음악의 향연 '파사, 바람 지동치듯', '춘설春雪', '고혹蠱惑', '운무雲霧 1.2'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안무, 구성한 '학이여, 그리움이여', '오고무'로 꾸며지는 1부 '고요의 시간'에 이어 2부 '용호상박'에서는 '적벽가' 가락에 맞춰 웅장한 군무가 펼쳐진다.

- 연출, 안무/이정윤(예술감독)

테너 김화정 독창회

일 시 |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화정 010-9208-9752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이자 부산성악아카데미, 칸타빌레 단원으로 활동하며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화정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이,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미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빠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한 김화정은 이태리 락꼬니지 국제콩쿠르 1위, 개천예술제 대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9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다수 오페라 무대에 서온 김화정은 이번 무대에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이소영 • 해설/김성민
- 클래식기타/고충진 • 소프라노/신정순
- 바이올린/백재진 • 아코디언/홍기쁨

International Artist Series 3인 3색

일 시 |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더 스튜디오 010-5447-9163
www.mythestudio.com

3명의 피아니스트가 전하는 다채로운 음악여행 '3인 3색'.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University of North Texas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황준영과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Texas Christian University 최고연주자과정 전액 장학생으로 있는 막심 쿠다예프, 러시아 그네신 음악학교를 수석입학하고 러시아 및 미국에서 연주회 및 독주회를 가져온 스베트라나 에미노바가 서로 다른 각자의 개성이 담긴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바장조 K.332
라벨/거울 모음곡
브람스/피아노소나타 제2번 등

나윤채 비올라 귀국 독주회

일 시 |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나윤채 010-9147-4529

파워풀한 음색과 화려한 테크닉을 겸비한 비올리스트 나윤채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진 나윤채는 일찍이 창원 음악협회 콩쿠르 1위, 동의대학교 음악콩쿠르 1위, 글로빌 전국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재능을 인정받았고,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비올라 주자로서의 역량을 쌓기도 했다.
나윤채는 귀국 후 성산아트홀 2022 화요모닝콘서트 출연, 2022 울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객원 단원 참여 등 현재 창원과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며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다.

- 피아노/심정운

바리톤 배정행 독창회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효경 010-5182-5194

부산음악계의 산증인으로 음악인생 60년을 맞은 바리톤 배정행 독창회.
젊은 시절부터 부산 지역의 크고 작은 음악회에 2,000회 이상 출연하는 한편, 25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정행은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로 23년간 재직하며 청소년기 단원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합창 교육에도 앞장서왔다.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합창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알리는 교육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배정행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오랜 동료, 제자들과 함께 연륜이 묻어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래 전 오페라 무대에서 선보였던 곡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제33회 부산합창제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일 시 | 10월 26일-27일 수-목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아마추어 합창단 23개팀이 참여한다.

참가팀

붓다보이스콰이어, 부산브라보남성합창단,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 은파합창단, 부산예그리나합창단, 경남여고수정합창단, 부산시공무원합창단, 부산여성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부산CBS콰이어, 성산콰이어, 부산남구시니어합창단, 에체르콰이어, BTN불교TV합창단, 예그린합창단, 펠리체합창단, 한마음부산선법합창단, 금정시니어합창단, 영도구립여성합창단, FRAGRANCE CHOIR, 부산라이온스콰이어,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 부산진구남성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일 시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격정의 탱고에서부터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재즈, 그리고 두 장르와 클래식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누에보 탱고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특별한 무대.

탱고 역사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장식한 '아스토르 피아졸라', 재즈의 역사를 열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루이 암스트롱',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대중들에게 인식시킨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을 따라가며 그들이 음악 역사에 새겨놓은 의미를 되새겨보며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반도네온/고상지
- 피아노/최문석
- 바이올린/윤종수
- 더블베이스/김유성
- 트럼펫/박준규
- 해설/정환호

제5회 나눔행복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합창음악을 통해 '내 삶의 즐거운 변화'와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스스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창단한 나눔행복합창단의 제5회 정기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그동안 지역 소외 계층 나눔봉사 활동 및 공연을 해마다 펼쳐오며 합창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이른봄 인동초 등 한국 가곡과 이룰 수 없는 꿈, 메모리, 세계 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과 만난다.

- 단장/송하영
- 지휘/김성복
- 반주/김경미

부산시립합창단 제187회 정기 및 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일 시 | 10월 28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첫 발을 내딛었던 50년 전 그 날인 10월 28일, 창단 반세기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4인 4색 합창축제'.

1972년 시립합창단으로서는 처음 창단한 후 올해로 창단 반세기를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은 정교하고 섬세한 하모니로 부산을 넘어 세계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이기선 예술감독(제10대 수석지휘자)과 4대 수석지휘자 김광일, 7대 수석지휘자 김강규, 9대 수석지휘자 전상철 등 역대 지휘자 3인을 초청, 그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제9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문학과 함께 하는 플루트 Story IV
플루트 연주자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문화공감 0507-1490-8987

풍부한 음색과 맑은 소리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 독주회.

'문학과 함께 하는 플루트 스토리' 네 번째 무대로, 피천득 수필의 독백을 음악에 담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화, 전설 등에 등장하는 '피리 부는 사람' 등을 4개의 악장으로 묘사한 루셀의 '플루트 연주자'를 메인으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존 루터의 '고풍모음곡(Suite Antique)',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환상곡' 등을 연주한다.

- 피아노/유영욱
- 나레이션/김윤선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땡큐, 돈키호테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 오후 3: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지역 공연예술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무대,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축제의 문을 여는 첫 무대는 부산의 연극, 한국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의 '땡큐, 돈키호테'로,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젊은 연극배우와 죽고 싶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인의 좌충우돌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작품은 매년 10월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인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 참가한다.

- 작·연출/최은영
- 출연/박찬영, 이은주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협주곡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두남재 ENT 02-6292-9370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무대.
그동안 하마마쓰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마지막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과 제2번, 그리고 제3번을 들려준다.

- 지휘/최영선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22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200-1760

지난 1966년 동아대학교 음악학과가 개설되면서 첫발을 내딛은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 2022년 정기연주회.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공연, 학교방문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원, 함부르크 브람스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지휘자 조용민이 지휘하고 음악학과 4학년 윤서영(비올라), 서진원(성악), 신예은(호른), 김보경(성악), 정영훈(피아노)의 협연으로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제28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예약 필수)
문 의 | 멜로매니아 010-3885-6600,
010-9692-3973

노래를 사랑하는 생활성악인들의 솔리스트 모임인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지난 1994년 9월 창립 이후 28년간 매주 한차례 전문성악인들과 함께 연구하며 실력을 쌓아온 멜로매니아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수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근한 가곡과 아리아를 독창과 중창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물방아, 세월, 내 영혼 바람 되어, 고향생각, 시베리아 횡단열차, 산, 그대 창밖에서, 제비(La Goiondrina). 투우사의 노래, 그라나다 등 수곡

- 바리톤/한성권, 배용, 황우상, 정주영
- 테너/송은섭, 주철수, 정량부, 양수배
- 피아노/정소연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개설 10주년 콘서트 및 제8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학윤 성악클래스 010-9287-6350

지난 2011년 개설 후 수많은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양성해온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10주년 기념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지도교수 강학윤의 지도 아래 실력을 쌓아온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 지도교수/강학윤 • 음악코치/윤민화
- 소프라노/박순희, 김순희, 박혜정, 서장희, 김정자, 김경림, 김기자, 백규원, 김혜숙, 안강연, 박세실리아
- 테너/정창영
- 협연/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박아연 피아노 리사이틀 로버트 슈만, 그의 이면적 세계

일 시 |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독, 바이마르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에센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우회, 부산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한국피아노학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아연 독주회.
2017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수의 독주회, 듀오 연주, 실내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박아연은 현재 부산예중, 예고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라이프치히 국제음악캠프 매니저 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인 슈만의 '환상소곡집 작품 12'을 비롯해 '아라베스크 작품 18', '카니발 작품 9'를 들려준다.

김성식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풍부한 감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플루티스트 김성식 독주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 입학한 후 학사 및 석사,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성식은 그가 지향하는 음악인의 면모를 갖추고자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와 강의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움과 동시에 연주자로서의 다채로운 경험도 쌓아가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연주로 각광받고 있다.
김성식은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예고, 덕원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성민주

부산시민회관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 창작뮤지컬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일 시 | 10월 5일-6일 수-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감엔터테인먼트
카톡 문의(ID:Duethue)

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마련한 창작뮤지컬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이번 무대는 지난 2019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국 마당극 축전에서 초연된 '지워진 이름 부마'의 극장판으로, 비록 짧은 항쟁기간과 10·26 사태로 역사에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시민항쟁이었지만, 당시 암울했던 유신과 독재의 시대를 치열하게 견뎌내고 희생했던 시민들을 통해 부마항쟁이 가진 의미를 다시한번 되돌아본다.

- 연출, 극작/이상호
- 음악/강현민 • 안무/강수빈
- 출연/장재석, 이충환, 김수휘, 고정보, 이윤미, 박동비, 이채현, 김희재, 도수민 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조승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피아니스트 조성진 독주회.
해를 거듭할수록 연주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조성진은 지난 2월, 카네기홀에서 열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에서 '기적 같은 솜씨'(뉴욕타임즈)라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인 연주자임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프로그램

헨델/모음곡 제5번 마장조 HWV 430(1720)
브람스/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와 푸가 작품 24
슈만/3개의 환상소곡집 작품 111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블랙스트링 콘서트

일 시 |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 콘서트.
거문고 명인 허윤정을 주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색깔로 주목 받는 기타리스트 오정수, 전방위 대금 연주자 이아람, 그리고 역동성과 섬세함을 겸비한 타악 연주자이자 소리꾼인 황민왕으로 구성된 블랙스트링은 그동안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두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담긴 음악을 선보여왔다.
블랙스트링은 지난 2012년 런던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전 세계 유수의 공연장 및 페스티벌 초청 투어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려왔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클래식 라운지

일 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더 스튜디오 010-5447-9163
www.mythe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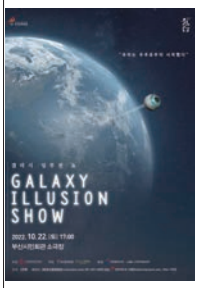
기존 클래식 공연의 틀을 깨고자 더 스튜디오와 신인 기획자 최해연이 새롭게 해석한 해설과 이야기가 있는 가족음악회 '클래식 라운지'.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황준영과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막심 쿠다예프, 스베트라나 에미노바, 그리고 성악가 이사랑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Je veux vivre)'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 때
라흐마니노프/회화적 연습곡
니콜라이 메트너/피아노 소나타 '트리지카'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갤럭시 일루전 쇼

일 시 |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일루전, 그리고 마술과 서사가 만나 눈 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우주로의 여행, 다원예술공연 '갤럭시 일루전 쇼'.
'갤럭시 일루전 쇼'는 지난 2020년 우주를 주제로 한 홀로그램 퍼포먼스 쇼로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초연된 후 매년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는 공연장이라는 환경을 새롭게 뒤바꿔버린 일루전 퍼포먼스 그룹인 '엘 일루전(L Illusion)'만의 홀로그램과 일루전, 그리고 서사가 만드는 융복합 공연으로,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와 마술이 주는 신비함이 만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가 아닌 장면으로 전달한다.

- 작, 연출/임태홍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후설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가)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1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에 빛나는 연극 '후설'.
연극 '후설'은 궁중의 말을 옮겨 적어 보좌하는 역사의 기록자들 후설(喉舌)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극으로, 조선시대 승정원을 배경으로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치권력 간의 세력 다툼과 음모를 현대적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사극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고루한 전통 역사극이나 요즘 유행하는 퓨전 판타지 사극과 달리 현대적인 화법과 캐릭터를 구축함으로써 탄탄한 구성과 함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동시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작/유보배 • 연출/천은영
- 출연/최대운, 이병철, 정희선, 신현주, 안정훈, 정아름, 윤수지

음악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열린음악회
가을의 전설

일 시 | 10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부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열린음악회 '가을의 전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공연 두 번째 무대로, 뛰어난 기교와 호소력 짙은 무대를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해피 앙상블과 함께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음악을 통한 하모니와 예술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다양한 문화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사라사테/카르멘 판타지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곡 등
- 협연/임재홍
- 특별출연/해피 앙상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일 시 | 10월 5일(수), 19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일 격주로 마련하는 수요상설공연 'onStage' 10월 무대.
올해는 onStage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예술단체가 무대에 선다.

5일(수) Hugo! We go!
부산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9인조 혼섹션 밴드로, 관악기 3개 이상을 편성한 혼섹션을 바탕으로 재즈, 라틴, 락, 가요 등 여러 장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주해온 혼섹션 밴드 '휴고'의 무대.
지난해 부산예술청년 도움닫기 주최로 열린 BPMF 경연대회에서 1위 수상한 휴고는 뉴욕, 서울, 도쿄 등 음악 진보의 최전선에 있는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 연주/서정환(드럼), 한도경(베이스), 김민석(피아노), 정한영(기타), 천재민(퍼쿠션), 천세훈(트럼펫), 하재현(EWI·플루트·테너색소폰), 신진호(트럼본), 박선우(보컬)

19일(수) 더 부산 혼 사운드 특별연주회
'내 삶의 힘이 되는 울림'
부산에서 활동 중인 호른 전공자 4인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창단한 더 부산 혼 사운드의 무대.
그동안 호른이란 악기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클래식, 영화음악, 춤곡 등 귀에 익은 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해온 더 부산 혼 사운드는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곡을 통해 호른이라는 악기가 주는 깊은 울림과 따뜻한 음색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R. 스트라우스/호른 협주곡 제1번
쇼스타코비치/왈츠 제2번 등
- 호른/오원택, 김영민, 박용인, 이민정, 강민주, 김지은, 최희진, 이소민
- 협연/노경선(호른), 최유리(해금), 양진일(타악기)

벨리씨미성악연구회 나운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가려나

일 시 |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벨리씨미성악연구회 010-9281-2662, 010-8277-4746

•••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벨리씨미성악연구회가 작곡가 나운영(1922년 3월 1일~1993년 10월 21일)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작곡가 나운영은 민족적인 요소에 현대적인 음악기법을 결합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한국의 음악, 한국적인 음악을 작곡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작곡한 예술가곡과 성가 독창곡, 서정 가곡을 엄선, 그의 성악곡을 재조명해본다.

스페이스움 10월 움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

박봉환

7일(제472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독일가곡연구회 회원, 벨리씨미성악연구회, 아모로제성악연구회 회원, 부산법원 행복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장은녕, 은빛노을합창단 지휘자, 프로무지카부산 전속지휘자로 있는 베이스 박상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오케스트라 BACO(Busan Attorney Chamber Orchestra) 회장이자 부산패밀리빅밴드 단원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박봉환이 10월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14일(제473회) TDC앙상블 리사이틀 '실내악으로 듣는 문학 작품'
독일, 러시아, 이태리 등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산 출신의 연주가들로 구성된 TDC앙상블의 무대.
지난 2011년 창단 이래 지금까지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그 '페르귄트', 쇼팽 '녹턴 제20번', 슈베르트 '마왕',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 '레미제라블' 등 문학 작품을 노래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고영주
- 바이올린/금성빈, 오근영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 타악기/우정은
- 해설/이선형

21일(제474회) 별 내리는 밤, 우리 가곡
피아니스트 이요한, 김재준, 소프라노 정애린, 김아름, 바리톤 지광윤이 함께하는 우리 가곡의 밤.

28일(제475회) 연세영 북콘서트 '오, 북관'
'데이드림'으로 활동하며 케빈 컨, 이사오 사사키, 마이클 호페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연세영의 북콘서트.
연세영은 그동안 음악, 미술은 물론 문학까지 섭렵하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세계를 누벼왔다.
- 진행/김은정(꽃꼬즌미스김 대표)

2022 을숙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일 시 | 10월 11일(화), 18일(화), 25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서부산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을숙도문화회관이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초청,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을숙도 Special Artist'.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와 성악, 앙상블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감각과 실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을 초청, 음악을 통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11일(화) 멜랑제앙상블 '슬라브 로맨틱'
- 바이올린/백재진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피아노/서혜리 • 클라리넷/백동훈
- 해설/김윤선

18일(화) 이안오케스트라 'For-Rest, 쉼 콘서트'

25일(화) 바이올리니스트 문수경의 아주 특별한 음악회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10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10월 무대.

12일(793회) 콰르텟 BCMS 정기연주회 'Quartet+1'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조혜운, 비올리스트 최영식, 첼리스트 홍승아 등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와 수석들로 구성된 콰르텟 BCMS의 무대.
지난 2021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콰르텟 BCMS는 이번 무대에서 쇼스타코비치 '현악4중주 제8번',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제2번' 등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김동욱
- 피아노/이윤수

19일(794회) 멜랑제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이윤지,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으로 구성된 멜랑제 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피아노 4중주 제1번' 등 앙상블 무대로, 다채로운 계절 가을만큼이나 다양한 선율로 깊어가는 가을을 선사한다.

26일(795회) 소프라노 강태경 귀국 독창회
일찍이 음악적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강태경 귀국 독창회.
강태경은 이탈리아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귀국한 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최태수

2022 MiOT 제25회 정기연주회
젊은작곡가들 오늘

일 시 |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MiOT 701-1584, 010-6566-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온 MiOT(Music in Our Time·우리시대음악)의 25번째 무대.
'젊은작곡가들 오늘'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작곡가 6명의 작품을 통해 동일 시공간에서 호흡하며 활동하는 이들이 '오늘'을 어떻게 접하고 수용하며, 더불어 창작과정에서 직면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피아노에서(노재봉), 이올린 독주를 위한 책상 위에 번쩍이는(배성운), 심청(유은선), 천주의 어린양(김진원), 난쟁이의 숲(이다빈), 회상(이상준)

제2회 우리 동네 클래식 음악회
가을 스토리

일 시 |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00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가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마련하는 제2회 우리 동네 클래식 음악회.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8월에도 고리원자력본부의 특별 후원을 받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수변공원에서 무료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리주자 김지윤, 해금주자 나리, 소프라노 김아름, 테너 김지호 등이 출연, 영화음악 및 가곡, 오페라 아리아 외에도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홍성택(상임지휘자)
- 사회/김동현(MBC 아나운서)

제12회 굿모닝 콘서트
김효영의 생황 트리오 '환생'

일 시 |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10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명맥을 잇지 못하고 전승이 끊겼던 악기 '생황'을 복원과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알려온 생황 연주가 김효영을 만날 수 있다.
신비롭고 다채로운 음색을 가진 생황과 첼리스트 강찬욱,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앙상블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라시대 향가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제망매가'를 비롯해 전통 음악의 시나위와 굿, 즉흥 연주의 특징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작품과 생황의 다양한 매력을 전한다.

부마항쟁 제43주년 기념콘서트
저항의 노래

일 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3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부마항쟁 43주년을 맞아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강병열)이 마련하는 기념콘서트 '저항의 노래'.
지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적 저항이자 나아가 유신독재의 붕괴를 촉진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지난 2020년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김민성, 신하람, 바리톤 시영민이 출연, 아침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상록수, 그날이 오면, 사계 등 1970년대 이래 대한민국에서 널리 불려진 '민중가요'를 들려준다.

• 연주/앙상블 프로무지카 • 진행/이진이

제54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8일-19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3-6692, 010-8488-6649

지난 1996년, 부산지역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교수들을 주축으로 창단한 후 현재 390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부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피아노음악 전문예술단체로, 그동안 활발한 학문교류와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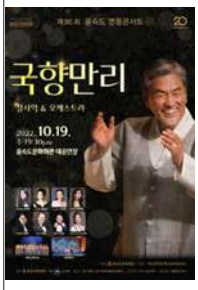
18일(화) 회상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확장으로 지역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 및 새로운 피아노 작품 발굴에 힘써온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이 부산의 원로 작곡가 故김국진 선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소리, 한국의 미'를 주제로 한 피아노 작품의 즉흥성과 한국적 리듬의 독창적 스타일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 출연/고정화, 김정희, 김은주, 김민지, 김정배, 허다영, 박소진, 양진경, 신정아, 이정선, 이수은, 서보람, 장서희

19일(수) 2022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격년제로 열리는 축제 형식의 무대로, 부산의 각 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을 리더로 연주자 8명이 팀을 구성하여 그랜드 피아노 4대로 연주하는, '2022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연주회로서 보기 드문 대형 무대로, 원로 연주자를 비롯하여, 중견연주자 및 젊은 신예연주자들까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총 64명의 연주자가 출연,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적인 클래식 작품을 편곡한, 재즈 풍의 Reg, 탱고 춤곡 등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4대의 피아노를 통해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게 선보인다.

제8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국향만리 장사익&오케스트라

일 시 |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개관 10주년이던 지난 2011년부터 선보여온 을숙도문화회관의 대표적인 기획시리즈 '을숙도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국향만리'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한의 소리, 인고의 소리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소리꾼 장사익의 무대로, 특히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에버그린코러스, 금빛합창단, 그리고 부산이 배출한 뛰어난 실력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소프라노 남순천, 김시하, 박지은, 테너 이우정, 이창훈, 바리톤 김창돈이 출연, 가을에 어울리는 풍성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가을맞이 가곡의 밤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가을맞이 가곡의 밤'.
부산캄머오페라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심금을 울리면서도 짙은 여운이 남는 노래로, 지난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캄머오페라단은 지난 2017년 창단 후 '2017년 부산 을숙도오페라 축제'에서 도니제티 오페라 '돈 파스콸레' 작품을 초연한 후 매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당신에게 필요한 컬러는?
컬러를 연주하다!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무료
문 의 | 권경미 010-2259-0136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색칠하며 3가지 감각으로 즐기는 이색 무대.
색채심리, 컬러테라피, 미술치료 등 컬러는 이미 심리 분석과 치료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고 현대에 들어서는 퍼스널 컬러로 이미지 메이킹도 필수인 시대이다.
이렇듯 이번 무대에서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컬러를 그림과 음악을 통해 마주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의 제공한다.

• 기획/권경미 • 해설/성지호
• 피아노/박다은 • 바이올린/손모아
• 첼로/문준수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마이 라틴 소울

일 시 |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10월 무대에서는 '마이 라틴 소울'이라는 타이틀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기타의 음색과 함께한다. 기타는 13세기 후반, 무어인의 지배 아래 있던 스페인을 거쳐 유럽에 소개되었는데, 이후 소르, 아구아도, 타레가, 망고레, 세고비아 같은 명인들을 거치면서 숱한 명곡을 내놓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기타리스트 박윤우, 한국 클래식 기타리스트 최초로 데카 레이블에서 음반을 발매한 기타리스트 박종호의 연주로 스페인 기타의 역사를 짚어본다.
특히 도이치 오퍼 베를린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베이스바리톤 김병길의 짙은 목소리와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꼼꼼한 해설로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6주년 기념 제54회 정기공연
마술피리

일 시 |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동화적 상상력과 연극적 요소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오페라로 재탄생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독일어 아리아와 대사를 우리말로 바꾸고 빠른 극적인 전개와 신비한 마술장면 등 다양한 무대장치와 특수효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예술감독, 연출/안지환(신라대학교 명예교수)
- 지휘/운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오케스트라/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
- 테너/김준연, 이창원
- 소프라노/박은경, 윤선기, 정예린, 김삼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바리톤/지광윤
- 연극배우/박승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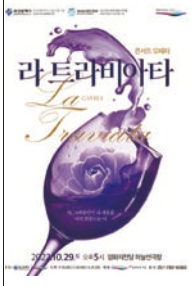
세자르 프랑크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Dear Frank

일 시 |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대동대학교 D'art Hall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를 기념, 아트뱅크코레아와 대동대학교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기념음악회.
10월 28일에는 테너 조윤환, 매조 소프라노 한현미, 피아니트 박유미, 성민주, 이보미, 첼리스트 정준수 등이 출연, 프랑크의 성악곡과 그의 유명한 소나타를 비롯해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 등이 연주된다.
11월 5일에는 트리오 피아체(바이올린 조무종, 첼로 정윤혜, 피아노 박정희)와 사운드 스테이지 앙상블 대표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원, 그리고 비올리스트인 김명복이 출연, 프랑크의 유일한 현악사중주곡과 피아노 5중주곡을 들려준다.

2022 부산오페라시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22 부산오페라시즌'의 마지막 무대는 (재)영화의전당이 마련한 콘서트 오페라로, 파리 화류계의 동백꽃 여인 비올레타와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성기선이 지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연출가 안경모가 연출을 맡았으며, 비올레타 역에는 이탈리아 마젠타(Citta di Magenta)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김신혜가, 알프레도 역에는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합창으로 만나는 가을연가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마련한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으로 만나는 가을연가'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가곡 및 가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Northern Lights(올라 야일로), Only in Sleep(에릭 에센발즈), 꽃구름 속에(이흥렬), 희망(김동률), 가을편지(김민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김광석) 등 수곡

- 지휘/임희준

연극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일 시 | 9월 8일(목)-202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평일 할인 1만8천원)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조정석, 박보영 주연의 TV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오 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모태 솔로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에 귀신이 빙의되면서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기억을 잃어 갈 곳을 잃은 미스테리한 여자와 소원을 풀지 못해 십여 년째 구천을 떠도는 처녀귀신, 그리고 연애를 글로 배운 모태 솔로 남자와 펼쳐지는 달콤살벌한 로맨스가 관객들에게 많은 웃음을 던진다.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9월 22일(목)-202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10/4, 10/11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평일 1만5천원, 주말·공휴일 1만8천원)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기구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파리만 날리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어느날 멸종위기의 나무늘보 수컷이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면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파리의 암컷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사파리익스프레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승진을 꿈꾸는 구해효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동물들의 대모를 꿈꾸는 손희영, 그리고 갓 입사한 막내 온리원까지 각기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늘보의 짝짓기 의지를 불태우는데….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왕국의 전설_잃어버린 이야기

일 시 | 9월 30일(금) 오후 2:00, 10월 1일(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10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0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고대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부족국가인 장산국, 내산국, 거칠산국을 배경으로, 고대, 중세, 르네상스, 현대를 모두 관통하는 보편적인 관념인 사랑, 전쟁, 증오, 권력, 욕망을 그린 판타지극 '왕국의 전설_잃어버린 이야기'.

• 작, 연출/김지용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일 시 | 10월 12일(수)-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무대공감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컬처버스 070-8276-0917 (배리어프리 문의 010-7677-1970)

•••

2022 예술경영지원센터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사업에 선정된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부산공연.
영화 '미성년'의 원작 희곡을 무대화한 '옥상 위 카우보이'는 부모의 부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아직 다 크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로, 지난해 서울 초연 당시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배리어프리' 회차를 도입해 수어 통역과 한국어 자막, 음성해설를 제공한다.

• 작/이보람 • 연출/권지현
• 출연/강정윤, 김정아, 라소영, 신강수, 이세영

※10월 14일·15일 공연 수어 통역·한국어 자막 제공, 13일·16일 공연 음성해설 제공

부두연극단 빈공간-가득찬 이야기

일 시 | 10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액터스소극장 010-7450-0038

•••

2022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부두연극단 '빈공간-가득찬 이야기'.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연극사의 한 장을 채운 원로 연극인들을 초청, 부산연극 초창기 시기의 모습과 이면사를 듣고 앞으로의 부산연극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특별한 자리로, 특히 연극계 선후배간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언제나 빈 공간인 무대, 그 안을 가득 채웠던 부산연극 이야기'를 위해 부산연극문화의 지평을 넓힌 김동규, 부산 최초 직업극단을 창당한 신태범, 연극의 다양성을 위한 소극장 연극운동을 펼쳐온 이성규, 지역 창작희곡과 비평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김문홍 등 4명의 원로 연극인이 참여한다.

마임이스트 유진규, 방도용의 콜라보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프랑켄 쇼타임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워크숍),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4:00(공연)
액터스 소극장
입장료 | 워크숍 3만원, 공연 2만원
문 의 | 부두연극단 010-7167-7200

•••

마임 인생 50년의 한국 최고 마임이스트 유진규와 부산의 마임이스트 방도용과의 콜라보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01년, 영호남 최초 창단한 마임극단 '파노라마'의 방도용 대표를 응원하기 위한 교류공연으로, 마임 공연과 더불어 연기자 지망생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 부산 마임의 터전을 넓히고자 한다.

작품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출연/유진규·작창, 소리/양일동·사진/장성하)
프랑켄 쇼타임(출연/방도용, 박은지, 정안지, 김승완·안무/박은지)

연극 우리 집 뜨락에는

일 시 | 10월 25일(화)-29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두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행을 약속하는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은 창작극 '우리 집 뜨락에는'.
어떤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가', 그가 숨어 있는 공간에 갑자기 침입하여 마치 자신의 공간인냥 행동하는 '나', 극이 시작되면 공간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와 허락하지 않으려는 자의 실랑이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
연극 '우리 집 뜨락에는'는 숨어들어야만 했던 공간에서 희망을 꿈꾸는 그들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최현정, 이동희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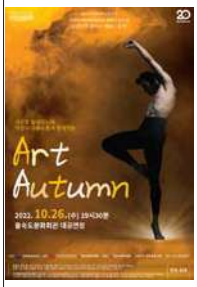
국립현대무용단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

일 시 |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국립무용단 초청으로 마련되는 창작 현대무용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는 남정호 예술감독이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취임 후 첫번째로 발표한 신작으로, 무용가로 살아온 연륜을 바탕으로 현시대를 고찰하고, 특유의 유희적·일상적 움직임들을 위트 있게 엮은 작품이다.
지난 2020년 온라인 비대면으로 초연무대를 가진 후 더욱더 심화된 스토리라인과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과 깊이를 더한 이번 작품은 특히 '불확실한 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뜨겁게 빛나는 생존자의 공간과 경쟁에서 벗어난 이들의 또 다른 세계가 대비되는 아이러니를 객석에서 관망할 수 있다.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Art Autumn

일 시 |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초대공연으로 마련하는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10월 무대.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발레리노 이주호와 부산의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발레 공연으로, 발레의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인 무대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춤의 세련미와 발레의 미적 아름다움을 춤으로 잘 표현하는 이주호 안무자의 안무로, 로맨틱한 여성 무용수와 활력 넘치는 남성 무용수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콘서트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3주년 기념공연
최백호 콘서트 낭만에 대하여

일 시 |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09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특유의 음색으로 노래하는 음유시인 최백호 콘서트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노래 인생 45주년을 맞은 가수 최백호가 인생의 수많은 계단을 지나온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때로는 딸을 시집보내는 '애비'의 마음으로, 때로는 입대를 앞둔 '청년'의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중년 남성의 마음으로 '낭만에 대하여' 노래해온 가객 최백호는 이번 무대에서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집중하며 노장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가슴 벅찬 무대를 선사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Luz Negra 초청공연 추억속 한켠의 가요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현재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색 밴드인 루즈 네그라(Luz Negra)의 무대.
'검은 빛'이라는 시적인 뜻을 지닌 루즈 네그라는 현대음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악적 트렌드의 식상함을 벗어나 아름다운 음색을 가졌지만 유행에 밀려 잊혀진 악기 아코디언과 함께 특정한 장르에 속하지 않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연주해오고 있다.
루즈 네그라는 이번 무대에서도 한국의 1950-60년대 음악을 루즈 네그라만의 색으로 재해석하여 들려준다.

- 아코디언/이원주
- 콘트라베이스/유경훈
- 보컬/구윤화
- 기타/안석호
- 드럼/김비오

행사

10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토요일 오후 3: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0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극작가 김문홍의 해설로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상영회를, 매주 금요일에는 브레겐츠 및 인기 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영화상영회(김문홍 해설)
환상의 빛(3일), 바닷가마을 다이어리(10일), 아무도 모른다(17일), 어느 가족(24일)

오페라 상영회
푸치니 '토스카'(7일), 비제 '카르멘'(14일),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21일), 드보르작 '루살카'(28일)

예필의 종합대중예술 렉처콘서트(4)
샹송과 서양화의 어울림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1관
입장료 | 초대(예약순 마감)
문 의 | 예필 최정욱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분야 동시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지난 샹송 예술 기행으로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샹송 영화/La Vie en Rose, 라 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2007, 올리비에 다한 감독
샹송/파리의 하늘 아래(Sous le ciel de Paris, 에디트 삐아프), 라 보엠(줄리에트 그레코) 등 12곡
서양화/명상하는 장미(Meditative Rose, 살바도르 달리) 등 8점
프랑스의 詩/취하라(Enivrez-vous, 샤를 보들레르)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연주 회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 '화성의 영감', 베토벤 '장엄미사'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비제 '교향곡 제1번'
브람스 '교향곡 제3번',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파가니니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리스트 '사랑의 꿈', 엘가 '첼로협주곡'
특집 '베토벤 실내음악'

제17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가을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김승희시인 외 초대시인

10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10월 17일(월), 20일(목), 24일(월), 31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29일(토) 오전 10:00 고석규비평문학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7일(월) 오후 7:00 포스트 시네마 시대의 영화

- 발제/차민철(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 토론/김대황(동의대 영화학과 겸임교수)

20일(목) 오후 7: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詩수다_이나열 시인과 함께하는 하루:우리 모두 시인_나희덕 시집 '사라진 손바닥(문지사, 2004)

24일(월) 오후 7:00 부산학 공부(1)

- 강사/구모룡(문학평론가, 한국해양대 교수)

29일(토) 오전 10:00 문학관 산책_고석규 비평문학관 탐방 ;고석규평론가의 삶과 비평'

- 강사/남송우(고석규 비평문학관장, 문학평론가)

31일(월) 오후 7:00 짧지만 긴 여운 단편영화와 함께하는 하루

- 강사/김경연(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

전시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 여행III
토요렉처콘서트

프랑스 파리 예술 여행

일 시 |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 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운영해온 토요렉처콘서트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III'. 콘서트가이드 김성민과 함께 떠나는 이번 강좌에서는 '프랑스 파리 예술여행'이라는 부제로,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성장과 함께 언제나 유럽의 중심이었던 도시, 파리의 역사와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을 중심으로 마네와 모네의 삶과 작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 후 드가와 르누아르, 고갱, 세잔, 로트렉, 보나 등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화가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을 알아본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일 시 | 7월 15일(금)-10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2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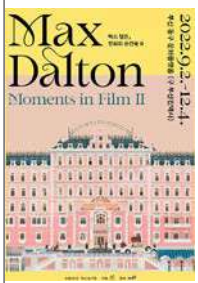
박영훈, 이지송 초대 2인전

일 시 | 9월 3일(토)-10월 12일(수)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한스 784-0233

20여년간 CF감독으로 지나온 시간을 뒤로하고 현재는 순수미술을 하고 있는 이지송 작가와 디자이너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대학에서 제자를 양성해온 박영훈 작가의 초대 2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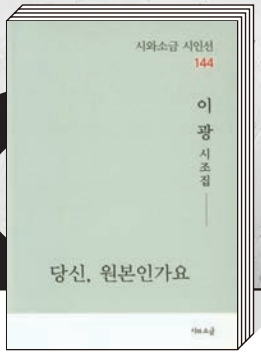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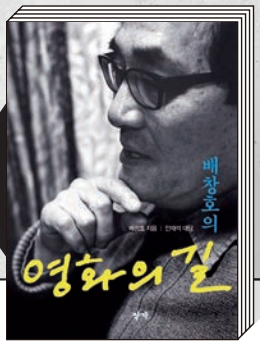
일 시 | 9월 2일(금)-12월 4일(일)
동구 문화플랫폼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만 6세 미만 어린이 무료)
문 의 | 부산동구청 465-407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맥스 달튼 작품전.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와 1970-9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를 소재로 작업해온 맥스 달튼의 이번 전시는 총 3막으로, 제1막 '우리가 사랑한 영화의 순간들'에서는 영화 역사에서 손꼽는 명작들을 맥스 달튼의 미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일러스트 작품을, 2막 '맥스의 고유한 세계'에서는 그가 일러스트로 참여한 그림책 '외톨이 공중전화기'를, 제3막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전설의 락밴드와 재즈 뮤지션들에게 헌정하는 LP 커버 디자인을 소개한다.

BOOK





당신, 원본인가요

이광
시와소금 / 1만원

이광 시인은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200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시조시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조집 '소리가 강을 건너다', '바람이 사람같다', 현대시조 100인선 '시장 사람들'에 이어 2022년에 시조집 '당신, 원본인가요'를 보탰다. 부산시조 작품상, 이호우 시조문학상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당신, 원본인가요'는 이광 시인이 그동안 써왔던 시조 세계를 더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를 감싸는 시선은 이번 시조집에서 더 다양해지고 깊어졌다. 시조집의 첫 페이지에 수록된 작품 '옹벽'은 최근 태풍과 폭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하다. "비탈진 생을 안고 / 무너지지 말자, 우리 // 서로가 기대가며 / 하루하루 쌓은 다짐 // 무가내 퍼붓는 빗줄기 / 이 악물고 견딘다". 짧은 단 한 수의 시조가 품은 위로가 웅숭깊다. 이상기후, 수 십 년 만의 기록적 폭우, 초강력 태풍 말고도 우리네 인생 위에 무가내 퍼붓는 시련이 얼마나 많겠는가. 힘들 때 누구나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시련을 이겨낸다. 순탄하기만 삶은 없다. 이광 시인의 시조는 지치고 힘든 삶을 위로하고 품는다.

의궤, 8일간의 축제

BS 의궤, 8일간의 축제 제작팀
민음사 / 2만원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을묘년(1795년) 화성 행차를 다룬 <의궤, 8일간의 축제>. 의궤(儀軌)는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도서다. 조선 왕조의 의궤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책에서 다루는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의궤 중의 의궤로 꼽히며, 조선의 기록 유산 중에서도 화려한 그림으로 잘 알려졌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열기로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다. 6,000명에 달하는 수행원이 1㎞가 넘는 행렬을 이루는 큰 규모였다. 출발에서 귀환까지 모두 8일간이 기록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정조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낸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그림들은 당대 최고의 화원들이 그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작품은 '반차도'이다. 화성으로 가는 수행원 1,772명과 말 786필이 그려져 있다. 실제 행렬보다 압축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엄청난 규모가 감탄을 자아낸다. '의궤, 8일간의 축제' 제작팀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본래에 가까운 색을 찾아 본문(40~71쪽)에 총 32장으로 나누어 게재했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지면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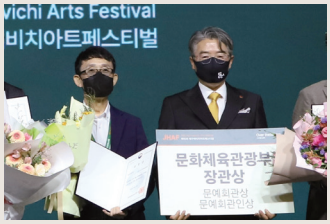
배창호의 영화의 길

배창호 지음, 안재석 대담
작가 / 2만 원

거장 배창호 감독이 2022년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그에게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별명을 붙여준 영화는 1985년 작 '깊고 푸른 밤'이다. 한국 영화계도 제작 여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뛰어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미국에서 모두 촬영했다. 서울에서만 6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아 당시 역대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깼으며, 미국에도 배급돼 당시 'LA 타임즈'의 'Pick of the Week'(이 주일의 영화)로 선정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자는 내한하여 배창호 감독을 인터뷰했는데 이때 기사 제목이 별명이 됐다. 대중에게 사랑받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는 의미다. 이 책은 배창호 감독의 유년 시절부터 '꼬방동네 사람들'(데뷔작)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정' '여행'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그의 넓은 영화 체험과 한국 영화계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2016년 제38회 황금촬영상영화제 신인감독상을 받은 안재석 감독이 묻고 배창호 감독이 답했다. 배창호 감독의 작품을 기억하는 영화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영화예술을 이해하도록 정리했다. 배창호 감독의 영화세계를 넘어 한국영화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자료이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법인 출범 6년을 맞은 (재)부산문화회관은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연장 운영 활성화와 제작공연 확대, 지역예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스페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수강생의 적극적인 예술참여를 이끌어왔다. 특히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오페라하우스, 국립아트센터 설립 등 부산의 공연지형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사업과 적극적인 추진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부산시립예술단 7개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초대형 융복합 공연으로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MIOT/어디로부터', '수퍼타이거' 등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청년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성과로 인정 받았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부산시와의 끊임없는 유기적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위해 더욱더 큰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은 지난 9월 1일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메세나 사업모델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단순히 협약 체결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실무자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두 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교향악단 60년사> <합창단 50년사> 발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교향악단 60년사>와 <합창단 50년사>가 10월 말 발간된다.

1962년 창단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올해로 회갑을 맞이했다. 1972년 창단해 국내 시립합창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시립합창단은 50년 역사와 함께 합창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향악단 60년사>, <합창단 50년사>는 시대 순으로 두 단체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 공연 소개, 관련 인사와의 인터뷰, 칼럼 등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교향악단 60년사>, <합창단 50년사>는 발간 후 주요 도서관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PROGRAM

2022.8-12월
August-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4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7.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8.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평범한 청년들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문화 | 대극장 2022. 8. 26.(금)-27.(토)
금 8:00pm / 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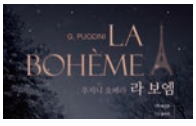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9.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9.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 9. 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린 현실에 수놓이는 영원한 청춘의 낭만
오페라 <라 보엠>
문화 | 대극장 2022.10.1.(토)-2.(일) 3: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2.10.26.(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전하는 희망의 노래
<부산오페라갈라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11.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중국 고전!

<회란기>

문화 | 중극장 2022. 11.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대극장 2022.11.9.(수) 7:30pm
※ 티켓 추후 오픈

해피 바이러스 대니의 음악에 누구나 커넥트되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문화 | 대극장 2022.11.20.(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바이올린 대니 구 I 피아노 원재연 ※만 7세 이상 관람

박근형 연출의 히트작
경숙이 父女의 엎치락뒤치락 가족사!

<경숙이, 경숙아버지>

문화 | 중극장 2022. 11. 25.(금)-26.(토)
금 7:30p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겨울을 알리는 O.S.T의 향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문화 | 대극장 2022.12.3.(토) 5:0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젊은 거장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

사라 장&비르투오지

문화 | 대극장 2022. 12. 18.(일) 5:00pm
V 130,000원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 콘서트>

시민 | 소극장 2022.10.1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내일의 우주로 떠나는 환상적 모험!

<갤럭시 일루전 쇼>

시민 | 소극장 2022.10.22.(토) 5:00pm
전석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왕의 말을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벌어지는 사건!

<후설>

시민 | 소극장 2022. 10. 29.(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특유의 감성으로 매료되는 '스탠딩에그'
번뜩이는 위트로 사랑받는 믿음의 밴드 '소란'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2.12.17.(토) 6: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이금이 작가 동명소설 원작
유쾌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두 명의 유진

<유진과 유진>

시민 | 소극장 2022. 12. 30.(금)-31.(토)
금 7:30pm / 토 2:00pm, 7:00pm
R 50,000원 S 40,000원 ※만 9세 이상 관람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8.31.(수)-12.28.(수)
매주 수요일 7:00pm
전석 무료

페스티벌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10. 7.(금), 10. 14.(금) 12:20pm
무료
※9. 30.(금) 문화플렛폼 시민마당
10.21.(금) 부산유라시아플렛폼

부산 지역 예술가의! 부산 지역 예술가에 의한!
부산 지역 예술가를 위한!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대극장 2022.10.11.(화)-11.18.(금)
시민 | 대·소극장
※ 티켓 가격 및 세부일정 추후오픈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해운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심포니야夜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기획연주회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11. 17.(목) 9:00pm
전석 5,000원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미완성 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납량특집 ‘미스테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종욱 | 사회 윤중강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本色

문화 | 대극장 2022. 10. 20.(목)-21.(금)
8:00pm
R 30,000원 S 20,000원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몰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출출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염지선
출출 김은오, 서보기, 이태성

제73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당선작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With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5,000원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 Ensemble
문화 | 대극장 2022. 10. 15.(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례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2022년 8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려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 공연 및 전시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041,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오페라 <라 보엠>
10월 1일(토) 오후 3:00 종료
10월 2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블랙스트링 콘서트
10월 14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R석 20매)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10월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바.문.사)
<땡큐, 돈키호테>
10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회차별 30매)

연극 <후설>
10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200)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회란기>
11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예술집단C <토끼h의 시간>
11월 9일(수)-10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일파가야금합주단 <현의 노래>
11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11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11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2022 부산인터내셔날뮤직페스타
11월 26일(토) 오후 6:30, 27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50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경희댄스시어터
<그 곳엔 사람이 산다-우물가의 살인사건 >
12월 2일(금) 오후 7:30,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12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12월 17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20매)

사라 장&비르투오지
12월 18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뮤지컬
<유진과 유진>
12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R석 10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우리는 우주로부터 시작했다"

갤럭시 일루전 쇼

GALAXY ILLUSION SHOW

2022. 10. 22. |토|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부산문화회관 L'ILLUSION prestig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석 2만원 예매처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또는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544-1555)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BLACK STRING

BLACK STRING

2022. 10. 14 FRI 7:30 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Guest

Cello 김 솔 다니엘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 입장연령 | 초등학생 이상

| 할인 | **50%** 장애인 중증 : 동반 1인, 장애인 경증 : 본인만,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상자(1급~2급) : 동반 1인, 의상자(3급 이하) : 본인만, 유족증(국가유공자, 의사자) : 본인만

30% 단체할인 : 15인 이상 **20%** 정기회원 할인, 학생 할인, 경로우대 할인, 가족친화적기업인증 할인, 다자녀가정 할인, 예술인패스 할인, 방과후행복카드 할인

2021년 대한민국연극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금상) 수상작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올림

후 설

2022.10.29.(토)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 유보배 연출 | 천은영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 **전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700년째 계속되는 이야기

석회의 원 중앙에 아이를 세워라!

연극

회란기

원작 이잠부 각색/연출 고선웅

2022. 11.4.|금| 19시 30분 ~ 5.|토| 1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작 극공작소 마방진 (주)엠비제트컴퍼니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능

INVITATION TO THE ARTS

2022 10 OCTOBER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텍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사진 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포토 존

이벤트 기간 2022년 9월 26일(월)~11월 15일(화)

포토존 주제 부산 시민이 추천하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포토 스팟

참 여 방 법 사진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포토존 #부산시민회관포토존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12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유 의 사 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당첨 상품은 정해진 금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051-607-6043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이벤트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사진맛집 BSCC 이벤트 당첨자

우수상

@junghaeun83

우수상

@monpetit.samuel.kim

우수상

@enna199407

우수상 @junghaeun83 @monpetit.samuel.kim @enna199407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당첨자 없음

COUPON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10.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1 612-9566	10 621-5788
2 624-9776	11 070-755-2188
3 626-7111	12 611-3973
4 611-4241	13 908-1111
5 626-4448	14 625-9402
6 622-7412	15 626-2292
7 611-3589	16 010-3996-6498
8 628-8009	17 623-0772
9 621-7040	18 628-3832

Music & Art / etc.

Ⓐ 868-3311
Ⓑ 868-3311
Ⓒ 625-7275
Ⓓ 628-2592
Ⓔ 622-1456
Ⓖ 621-6669
Ⓗ 626-7900
Ⓘ 080-337-3370
Ⓙ 622-9722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텍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우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받는 사람

이 름

주 소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INVITATION TO THE ARTS
2022 10 OCTOBER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022 부산공연 콘텐츠 페스타

2022.
10. 28(Fri.)
-12. 3(Sat.)

땡큐, 돈키호테

극단 바.문.사
10.28(금) 7:30pm, 29(토) 3:00pm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토끼h의 시간

예술집단C
11.9(수)~10(목) 7:3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현의 노래

일파가야금합주단
11.15(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물가 살인사건 - 그곳엔 사람이 산다

경희댄스시어터
12. 2(금) 7:30pm, 3(토) 5: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Performing Arts Busan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051-607-6000(ARS 1번)